

PART 08

인천민주로드

- 8-1 사라진 해안을 따라 걷는 산업의 현장
- 8-2 응봉산 기슭에서 '독립'과 '민주'의 타임슬립
- 8-3 응답하라 1986
- 8-4 소금밭에 피어오른 공장의 불빛
- 8-5 부평에 울려퍼지는 평화의 목소리
- 8-6 표지석으로 탐방하는 부평공단
- 8-7 염하에 흘러간 소창의 역사
- 8-8 강화에서 밝힌 독립의 횃불
- 8-9 길이 빛나는 인천의 역사

8-1

사라진 해안을 따라 걷는 산업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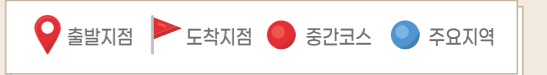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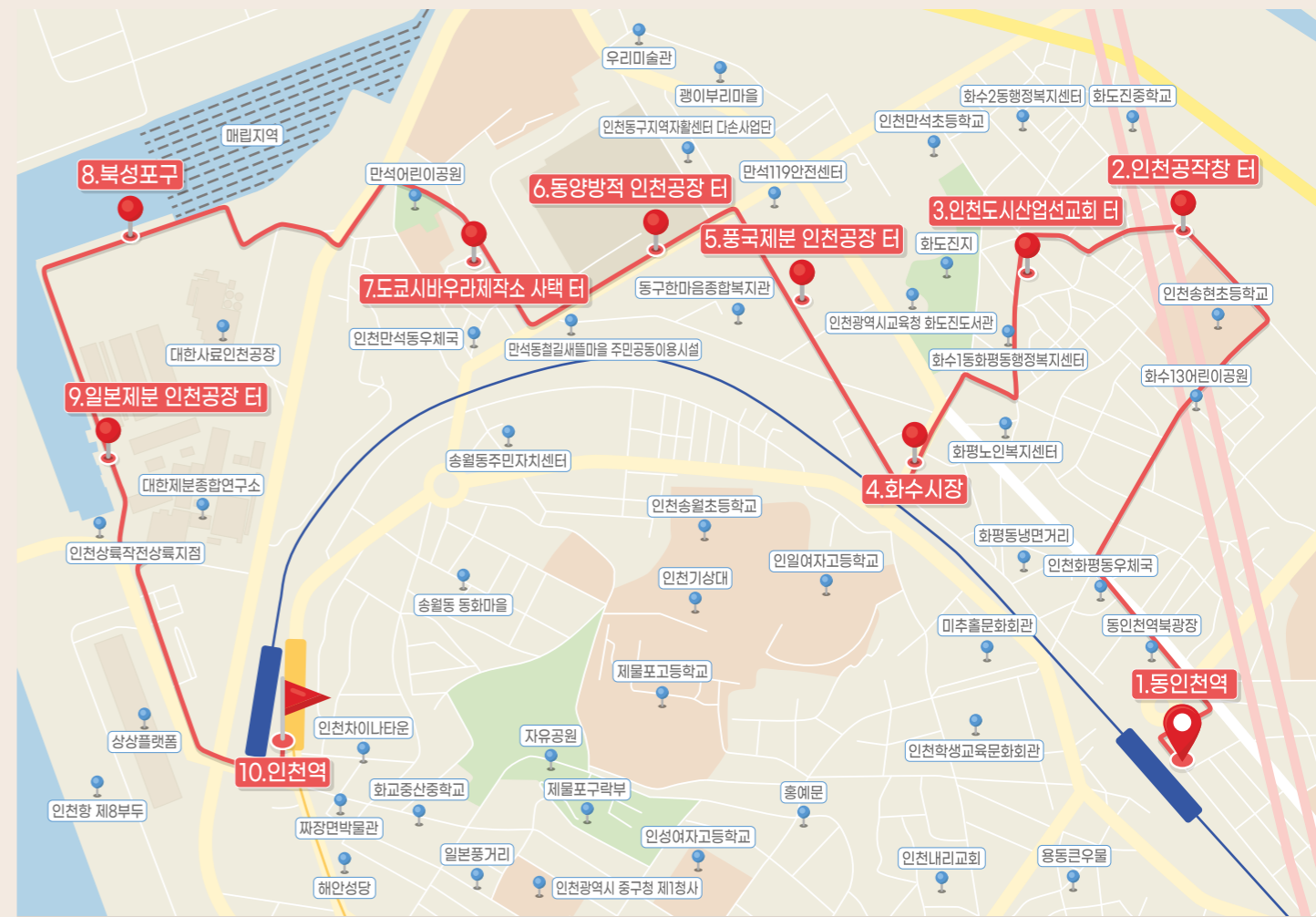
체험코스

- ① 동인천역 → ② 인천공장터 → ③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터 → ④ 화수시장 → ⑤ 풍곡제분 인천공장 터 → ⑥ 동양방직 인천공장 터 → ⑦ 도교시바우라제작소 사택 터 → ⑧ 북성포구 → ⑨ 일본제분 인천공장 터 → ⑩ 인천역

총거리 4.5km
도보시간 2시간 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노동 #산업 #공장지대 #해안 #동양방직 #북성포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8-1

사라진 해안을 따라 걷는 산업의 현장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이 계속되자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인천해안을 대규모로 매립, 공장들을 들어서게 하였다. 이때 지금의 동구 매립지에 생긴 공장들이 동양방직 인천공장,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조선기계제작소 등이었고, 미추홀구 해안에 설립한 공장들이 제국제마주식회사, 경성화학공업주식회사 등이었다. 공장 주변에는 직원들의 숙소인 사택들도 건설됐다. 일본은 이렇게 등장한 공장들에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여 고통을 겪게 하였다. 광복 후에도 그대로 남아 운영된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슷한 삶을 살며 시대의 굴곡을 온 몸으로 헤쳐 나갔다.

첫 번째 만남

동인천역



▲ 동인천역 전경

동인천역의 옛 이름은 축현역이다. '축현정거장'이란 이름도 갖고 있었다. 경인철도가 개통된 189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축현역 인근에는 넓은 못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이곳에서 스케이트장이 개장되기도 하였는데, 1920년대에 당시 용리, 즉 지금의 용동 언덕의 흙을 파내서 매립하였다.

축현역 앞의 연못은 꽤 유명했던 모양이다. 채만식은 '탁류'를 쓰면서 이 연못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던 미두장, 즉 인천미두취인소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니 축현역 앞 연못의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축현역은 1926년에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무렵에는 상인천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도 늘어나서, 1928년 조사에 따르면 상인천역 이용 승객 수는 경성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상인천역의 1년간 이용 승객 수는 89만 명이었는데 용산의 88만 명, 대구의 83만 명, 부산의 50만 명보다 많았다. 경성은 264만 명, 평양은 126만 명이었다.

상인천역에 이렇게 승객들이 모여든 것은 이 역이 '인천의 관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천 시가지에 접근하려면 인천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상인천역에서 내리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역 이름이 문제였다. '인천역'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인천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인천역이 아니라 인천역에서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1938년, 상인천역을 인천역으로 바꾸고 기존의 인천역을 하인천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결국 광복 후인 1948년에 과거에 쓰던 명칭인 축현역으로

되돌아갔다.

축현역은 다시 1955년 지금의 명칭인 동인천역으로 바뀌었다. 동인천역 역사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됐던 것을 1957년에 3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했고, 1989년에는 민자역사를 건설했다. 1963년에는 동인천역 앞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지하도 기공식이 개최됐고, 1965년에는 동인천-주안간 경인선 복선이 개통됐다.

동인천역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다. 지금은 광장이 사실상 사라졌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의 6월민주항쟁 당시에도 동인천역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공간이었다.

두 번째 만남

인천공작창 터

인천공작창은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정비하던 공장이다. 화도진중학교 일대에서 송현파출소까지 걸쳐 있었다. 인천공작창의 전신은 1937년에 건설된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이었다. 광복 후 적산이었던 일본차량주식회사는 조선차량주식회사란 이름으로 바뀌어 계속 운영되다가 1950년 6·25전쟁 중에 인천공작창으로 새 출발을 하였다. 1951년 1·4후퇴로 문을 닫은 후 공장의 가동과 폐쇄를 반복하다가 1962년 1월에 다시 업무를 개시했는데, 1984년 대전철도차량정비장으로 흡수되며 폐쇄되었다.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된 철도차량 중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대통령전용열차가 있었다. 전망대, 식당, 침실, 목욕탕 등을 갖춘 열차였다. 1955년에 제작됐다. ‘채건호’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초특급열차’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6시간 10분이 걸렸다. 인천공작창 인근에는 ‘철도청 관사’라고 부르는 사택들도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 인천공작창 터

세 번째 만남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터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전도를 목적으로 창립된 조직이다. 처음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산업전도위원회로 출발했다. 1961년 9월, 산업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에 온 조지 오글(Georgey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인천서지방 감리사 윤창덕 목사와 인천동지방 감리사 조용구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 인천산업전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후에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로 이름을 바꾼다.

인천산업전도위원회는 조지 오글 목사의 사택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인현동을 거쳐 1971년에 지금의 자리인 동구 화수동 183번지에 정착했다. 조지 오글 목사의 산업전도는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카프링 모임 등이 결성되며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천산업전도위원회의 활동은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화해자라는 사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동일방직 등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1980년에는 화수동에 부설 놀이방인 ‘민들레 어린이집’을 개설하였다. 1996년에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터

네 번째 만남

화수시장

화수시장은 사실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지금은 점포 몇 개만 겨우 불을 밝히고 있다. 이들도 장사를 한다기보다 생활 터전이었던 시장의 기억을 놓고 싶지 않은 간절함 때문에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수시장 자리는 1968년 문을 닫은 대한성냥공장이 있던 곳이다. 광복 후 설립된 회사로 종업원은 250여명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같은 자리에 김태훈 정미소가 있었다. 1949년 이 정미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불탄 자리를 매입해 문을 연 것이 대한성냥공장이었다. 정미소와 성냥공장을 거쳐 1971년에 화수시장이 생겼다.



▲ 화수시장

화수시장은 1970년대에 유행했던 상가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이란 구호와 함께 등장한 상가아파트는 저층에 점포를 배치하고 높은 층은 주거시설로 구성된 모습이었다. 삼각형 형태의 건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한가운데에 같은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곳에 상인들이 좌판을 열어 장사를 하였다. 화수시장은 화수부두와 만석부두가 가까워서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만남

풍국제분 인천공장 터

풍국제분 인천공장은 지금의 삼화제분 인천공장 자리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밀 재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등 한반도의 서부지역이 밀 주산지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에 따라 이 일대에 제분소가 속속 건설되기 시작했다. 인천에는 1935년에 지금의 대한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의 전신인 일본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이 착공된 것과 함께 같은해 풍국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이 설립됐다.



▲ 풍국제분 인천공장 터

풍국제분은 1934년부터 사이토 정미소(齋藤精米所)를 매수해 제분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1936년부터 공장 조업을 시작하였다. 정미소나 제분공장에는 여성 인력이 많았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회사에 맞서 동맹파업 등을 벌여나갔다. 일제강점기 사이토 정미소와 풍국제분 인천공장 터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농축된 곳이며, 식민지 노동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여섯 번째 만남

동양방직 인천공장 터

동양방직 인천공장은 1934년에 건설됐다. 광복 후 동일방직 인천공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돼 왔으며 현재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동양방직은 1914년에 일본의 미에방직 주식회사와 오사카방직 주식회사가 합병해 만든 회사였다. 1932년, 인천부윤이었던 마쓰시마가 동양방직 인천공장의 인천 유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32년부터 공장 부지에 대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었다.

동양방직은 1933년부터 직원을 모집했다. 예상 인원은 남자가 200명, 여자가 1,200명 정도였다. 지원 자격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을 갖



▲ 동양방직 인천공장 터

춘 14세부터 20세까지의 독신 여성, 2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었다.

동양방직은 공고를 통해 모집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모집책을 별도로 고용해 각 지역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나이를 위조한 어린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방직 인천공장도 일제강점기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수가 많았다. 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다가 1976년의 이른바 '나체시위 사건'과

1978년의 '오물투척사건'을 겪으며 대표적인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남게 되었다.

일곱 번째 만남

도쿄시바우라 제작소 사택 터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인천공장의 사택지이다. 도쿄시바우라제작소는 1939년에 도쿄전기주식회사와 시바우라제작소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 대형 전기기기 등을 생산했다. 기계공장, 판금공장, 주조공장 등이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2층 규모의 '사무소'도 있었다. 사무실과 제도실로 사용하던 공간이다.



▲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사택 터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인천공장은 1938년 화수동 매립지에서 공장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1943년에 조선공업협회로부터 숙련공 양성을 위탁받았으며, 1944년에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다. 광복 후에는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었다가 1956년에 민간에 불하되어 인천전기주식회사가 되었다. 1999년에는 일진그룹이 인수해 일진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7년에 일진전기가 일진중공업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되었다. 일진전기는 2014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인천공장 사택은 동양방직 인천공장 옆에 건설되었다. 집단주택의 형식을 띤 주거지였다. 이곳 이외에 화수동 7번지 일대에도 사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덟 번째 만남

북성포구

북성포구는 인천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포구 중 하나다. 지금은 포구 앞 바다 일부가 매립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선이 운항중이다. 북성포구는 선상파시로 유명하다. 어선이 들어오면 시간에 맞춰 찾아온 사람들이 배 위에서 새우나 생선들을 바로 거래해 들고 간다.



▲ 북성포구

북성포구에서 눈여겨 볼 것은 포구 인근에 있는 목재들이다. 원목은 북성포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주요한 일거리였다. 목재의 껍질을 벗겨 생활을 해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이 일대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목재 공장은 인천 해안지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장들이었다.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만 운영중이다. 북성포구에서 어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목재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포구에 기대 살아왔던 주민들의 삶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아홉 번째 만남

일본제분 인천공장 터

일본제분 인천공장은 1935년에 건설됐다. 5층 건물 1동과 2층 건물 5동이 있었다. 건물의 낙성식은 11월 21일에 개최됐다. 당시 인천에는 제분 공장이 속속 들어서서 이미 조선의 대표적인 제분 생산 지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일본제분은 인천은 물론 조선 제분 시장의 장악을 위해 설립 후 공격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공장을 가동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해 갔다.



▲ 일본제분 인천공장 터

일본제분 인천공장이 연간 생산하는 맥분의 양은 200만 포대에 달했다. 조선 내에서 소비되는 양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일본제분이 이렇게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 나가자 풍국제분 역시 생산량을 늘리는 등 경쟁을 이어갔다. 이어 일청제분 역시 영등포와 진남포에 공장을 설립해 조선에는 일본제분, 풍국제분, 일청제분의 3파전이 광복 때까지 이어졌다.

일본제분 인천공장은 지금도 대한제분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 번째 만남

인천역



▲ 인천역

인천역은 경인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될 때 영업을 시작했다. 한때 하인천역이라고 불렸다가 다시 인천역으로 정착됐다. 항만과 가까운 탓에 일제강점기의 인천역은 화물이 항상 쌓여 있는 역이었다. 동구 해안의 공장지대로 철도 노선도 연결돼 있어서 인천역은 부두 노동자들과 해안가 공장 노동자들의 일터이기도 했다.

한편, 휴가철의 인천역은 월미도를 가기 위해 찾아오는 인파로 가득했던 역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의 월미도는 부산의 해운대 등과 어깨를 견주던 명소였다.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조탕이나 해수욕장, 캠핑장 등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미도는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며 관광지로서 기능을 상실해 갔다.

간혹 인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인천역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천역에서 내려 시내 중심가로 이동하기엔 거리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시내에 불일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축현역에서 내렸다. 지금의 동인천역이다. 그런데 인천역이란 이름 때문에 인천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당시의 축현역 대신 인천역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축현역을 상인천역으로, 인천역을 하인천역으로 바꾸었다가 광복 후 인천역으로 정착시켰다.

인천역은 차이나타운과 연결된 공간이면서 개항 이전에는 포구로 활용되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의 인천과 개항 후 신도시의 모습이 교차되는 장소다. 인천지역의 근대도시를 탐방하는 첫 출발지로서 의미가 있다.

답사활동

01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소를 선택해 순위를 매기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붙인 후 이유를 설명해 보자.

순위	장소	선택 이유
1		
2		
3		

02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공장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공장명	설립 연도	생산 제품
인천공작창		
풍국제분		
동양방적		
일본제분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생각해 볼 거리

인천광역시 동구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공장과 사택을 거리 곳곳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도시다. 대부분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건설된 것들이다.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든 공장들과 사택들은 광복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일본이 대륙침략전쟁을 목적으로 공장들과 사택을 배치하며 조성한 도시의 구조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인천개항 이전의 동구 지역은 포구와 해안이 있던 곳이었으며 산 아래 들어선 마을들이 작은 소로를 따라서 교류해 오던 지역이었다. 그러던 곳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해안이 매립돼 공장이 생겼고, 그 공장들을 따라 신작로가 뚫렸다. 그때 생긴 도시의 틀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마을이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 왜곡된 채 근대도시로 탈바꿈해 갔다. 도시 전체를 손댈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에서 왜곡된 공간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일제강점기의 공장들과 사택을 지역의 역사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한편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두운 역사를 지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역사와 유산의 의미에 대해서 현장에 남아 있는 건물들을 보며 정리할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김정국, 1967, 산업전도활동보고(인천 철도 공작창을 중심으로), 인천 산업전도위원회
- 김현석, 2020,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인천광역시 동구, 선인
- 화도진문화원, 2022, 물길따라 동구이야기, 화도진문화원
- 부평역사박물관, 2020, 삶의 터전 부평시장, 부평역사박물관

인터넷 자료

- 국가철도공단 <https://www.kr.or.kr/>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 인천광역시 지도 포털 <http://imap.incheon.go.kr/>

8-2

응봉산 기슭에서 '독립'과 '민주'의 타임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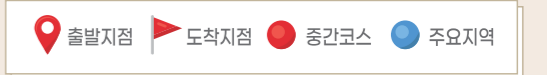
체험코스

① 도원역 → ② 인천공립보통학교 터(현 인천창영초등학교) → ③ 인천공립상업학교 터(현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 ④ 싸리재길 → ⑤ 답동성당 → ⑥ 경동사거리 → ⑦ 인천항감리서 터 → ⑧ 홍예문 → ⑨ 1919년 13도 대표자회의 터(현 자유공원)

총거리 3.3km
도보시간 2시간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인권 #독립 #민주 #3.1운동 #4.19혁명



8-2

응봉산 기슭에서 '독립'과 '민주'의 타임슬립



응봉산은 자유공원이 있는 산이다. 1883년 이후 인천 개항장의 중심이었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광복 후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간직된 곳이다. 인천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은 응봉산에 모여 독립을 외쳤고, 홍예문을 지나면서 정의를 호소하였으며 쓰리재와 경동사거리에서 서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시대는 다르다 해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인천지역에서 앞장서 독립과 민주를 이끌었던 건 학생들이었다.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해 일제에 맞섰다면,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은 4·19혁명의 대열에 동참하며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였다. 이들이 대열을 이루며 걸었던 쓰리재길, 경동사거리, 홍예문은 길 자체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오래 전 선배들이 걸었던 독립과 민주를의 길을 걸으며 거리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만나보자.

첫 번째 만남

도원역

도원역은 1994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될 당시 인근에 우각리역이 있었고, 이 부근에서 경인철도 공사가 시작됐다. 경인철도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공간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한국철도 최초기공지' 기념비가 현재 도원역 부근에 건립돼 있다.

철도가 놓이기 이전 도원역 일대는 황골, 혹은 황골고개로 부르던 곳이었다. 일본군이 이곳에 이른 시기부터 황곡병영이란 이름으로 군대를 주둔시켰고, 후에는 도산수비대란 이름으로 역시 일본군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도산역 앞에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자리에는 1936년 인천공설운동장이 건립되었으며, 이에 앞서 그 인근에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던 덕생원과 화장장 등이 옮겨 왔다. 한편, 1938년부터는 지금 인천도원실내체육관이 있는 언덕 일대를 도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도산(桃山)이란 이름은 도원동의 지명 유래가 됐는데,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도원역 일대에는 광복 후 공설운동장과 인천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광성중고등학교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문을 열었고, 승의자유시장과 평화자유시장이 개설됐다. 게다가 1970년대 무렵부터는 공구상가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승의공구상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원역 일대는 경인철도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다양한 성격의 시설들이 명멸했던 공간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 인천지역 도시생활사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도원역 전경

두 번째 만남

인천공립 보통학교 터 [현 인천창영초등학교]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학교였다. 1933년에 인천제일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1936년의 인천창영공립보통학교, 1938년의 인천창영공립심상소학교, 1941년의 인천창영공립국민학교 등을 거쳐 1996년에 인천창영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해에 학교 역사관도 개관하였다.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인천지역에서 3·1독립운동이 처음



▲ 인천공립보통학교 터(현 인천창영초등학교)

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 3월 6일, 인천공립 보통학교와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단 행하였고,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인천시내, 경인가도, 만국공원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날의 독립 운동이 1919년의 3.1운동 기간 중 일어난 인천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기록돼 있다.

인천공립보통학교 동맹휴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 이 김명진이다. 당시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동향을 경찰 당국에 계속 알려줬는데, 김명진 등은 이러한 조 치를 통해 경찰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3월 8일, 이만용, 박철준, 손창신 등과 함께 학교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김 명진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인천창영초등학교 안에는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3·1독립만세 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가 서 있다. 한편, '인천창영초등학교(구)교 사'는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공립 상업학교 터

[현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는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이곳의 학생들은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자유 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이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인천공립상업학교는 중구 울목동 1-27, 현재의 인천정보과학고등학 교 자리에 있었다. 본래 1895년에 개교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부터 시작 된 학교이며, 1909년 관립인천실업학교로 개편되었고, 1912년에 인천공 립상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1933년 인천공립남상업학교와 통합된 뒤, 1946년에 인천공립상업중학교로 바뀌었고, 1951년에 인천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1919년 3월 6일,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은 인천공 립보통학교와 함께 동맹휴업을 단행해서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인천시내, 경인가도, 만국공원 등지에서 만 세운동을 벌였다. 이 날의 독립운동이 1919년의 3.1운 동 기간 중 일어난 인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 1929년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의 영



▲ 인천공립상업학교 터

향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의 맹휴가 연이어 일어나자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도 동맹휴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1939년에는 인천상업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오륜조(五輪組)란 모임이 조직돼 창씨개명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송재필, 김여수 등이 이 사건으로 검거돼 옥고를 치렀고, 김여수는 고문으로 인 해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은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 당시에도 인천지 역 학생들과 함께 혁명에 가담하며 거리 시위를 전개하였다. 나라와 민족 에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곳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와 폭정에 항거하였 다. 현재 인천고등학교는 미추홀구 주안동으로 이전해 있지만, 인천공립 상업학교 터는 당시 학생들의 의거를 기리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네 번 째 만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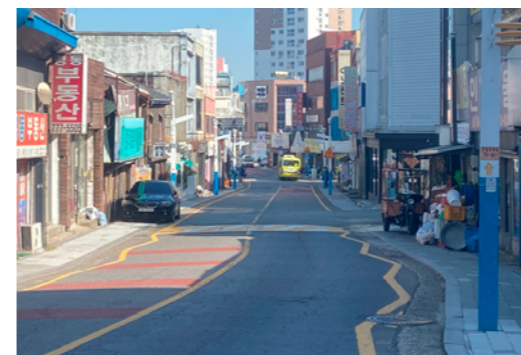
짜리재길

짜리재길은 배다리사거리에서 개항로를 따라 경동사거리까지 연결된 길을 말한다. 한때 인천시내의 변화가 중 한곳이었으나 침체기를 겪은 후 최근에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 공간이다. 개항로는 현재의 도로명이다.

'짜리재'란 이름은 과거에 짜리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확한 건 아니다. 짜리재길은 송림동과 배다리로 이어진 길 이면서 신포동을 지나 옛 인천시청인 지금의 중구청까지 이동할 수 있 는 길목이다. 1960년 4·19혁명 당시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대열을 이루 고 인천시청까지 행진하였던 혁명의 주요 공간이었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 항쟁이었다. 선거일 이 전부터 학생들이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긴 하였으나, 인천지역에서의 본격 적인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인천공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로부터 촉발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동인천역, 경동사거리, 시청 앞 등지에 서 '3·15선거는 불법무효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짜리재길은 한동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었다. 그 로 인해 이 길에 얽힌 역사도 관심 밖에 있었다. 이 길 만 아니라 긴담모퉁이길, 울목공원, 배다리 등 이 길과 연결된 공간들은 인천지역의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다. 4·19혁명 때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면서 인 천지역의 과거를 되새겨 보기에 충분한 장소이다.



▲ 짜리재길

다섯 번째 만남

답동성당

답동성당은 1897년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다. 홍요셉(빌렘) 신부가 벽돌 구조로 건립하였다. 답동성당이 이곳에 세워진 것은 제물포란 지역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인천에 이미 개항장이 설치된 뒤였고, 제물포는 인천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계를 중심으로 상업도 번성하였다. 원산에 본당을 설립한 바 있는 블랑 주교는 제물포가 새 본당을 설립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이곳에서 성당 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홍요셉(빌렘) 신부를 인천의 본당 신부로 임명하여 1889년에 부임하게 하였다.

홍요셉 신부는 1890년 현재 답동성당이 있는 언덕 일대를 매입한 후 공사를 시작, 1897년에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답동성당은 성당 건물뿐만 아니라 1973년에 건설된 가톨릭 회관도 중요한 역사 유산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답동성당 일대의 정비 사업과 함께 가톨릭 회관 건물은 철거되었다.

답동성당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공간이다.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1987년 1월 26일에는 '박종철군을 위한 추도식 및 기도회'를 열어 부당한 권력을 자행하는 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답동성당은 2009년 본당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성당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으로 성당과 주변 공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답동성당이 지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차지해 온 위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 답동성당

여섯 번째 만남

경동사거리

경동사거리는 옛 경동파출소 앞 사거리를 가리킨다. 짜리재길과 신포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면서 동인천역과 답동사거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곳이다. 동인천역에서 경동사거리까지는 낮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서 경동사거리는 마치 구룡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형 때문인지 이곳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주요한 시위 현장으로서 활용되곤 하였다. 1960년 4·19혁명 때도 그



▲ 경동사거리

랬고, 1987년 6월민주항쟁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경동사거리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행진을 이어갔다.

또한, 지금은 막혀 있지만 동인천역 앞에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동사거리에서 바라보면 동인천역 광장은 마치 무대와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동사거리부터 광장까지 이르는 도로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도로에 앉아 광장을 바라보며 집회를 여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한편, 경동사거리는 인천 중심가를 연결하는 사동팔달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포동과 짜리재길은 물론, 답동사거리를 지나 중구청 일대와 항만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인천역 앞을 거쳐 화수동이나 화평동 일대를 찾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경동사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위치한 경동파출소 건물 역시 현대사의 유산으로 기억해야 될 공간 중의 하나이다.

일곱 번째 만남

인천항감리서 터

인천항감리서는 1883년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된 후 개항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감리서의 장을 감리라고 하였는데, 인천도호부 부사가 겸직하였다. 그러나 개항장과 인천도호부 관아가 있는 지금의 문학동 일대는 거리가 꽤 멀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양쪽을 오가며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인천도호부 부사는 대개 개항장에 머물며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천항감리서가 있던 곳은 중구 내동에 있는 신포스카이트타워아파트 앞으로 알려져 있다. 옛 한진아파트 자리다. 여기에 '인천감리서 터' 안내판이 서 있다. 인천항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1883년이었고 뒤를 이어 1895년에는 개항장재판소도 설치되었다.

인천항감리서는 그 자체로도 인천지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지만, 이곳은 백범 김구가 수감된 장소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김구는 1896년, 일본군 중위를 살해한 혐의로 인천항감리서 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898년에 탈옥하였고, 이어 1911년 다시



▲ 인천항감리서 터

체포돼 1914년부터 1915년까지 경성감옥 인천분감에 재수감됐다. 김구도 백범일지에서 '인천 감옥으로 이감되었다'고 밝히며 '인천은 내 인생에 뜻깊은 곳'이라고 소회를 남겨 두었다. 김구는 두 번째 수감될 때 인천항 제2도크를 건설하는 '축항 공사장'에 동원돼 노역을 하였다. 이러한 연고에 주목하여 이 일대에는 현재 '청년 김구 역사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여덟 번째 만남

홍예문

홍예문은 1908년에 만든 통로다. 일본 공병대가 주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곳을 혈문(穴門)이라고 불렀다. 돌을 쌓아서 아치형으로 만든 문이다. 홍예문을 만든 이유는 조계지역과 만석동 일대를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응봉산을 우회해서 우마차를 끌고 가기엔 불편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원활하고 안전한 물류 수송이 이 문을 만든 주된 목적이었다.

인천이 개항장이 된 후 사람과 물자는 모두 개항장 내에 설치된 조계 지역에 집중됐다. 당시에는 항구도 구분하여서 만석동 일대의 해안을 내항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신포동 앞바다를 외항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각각 만석동 내항, 탁포 외항이라고 하였다. 내항에는 조선인들의 선박만 정박할 수 있었고, 조계지 앞 외항은 외국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만석동 내항에 화물을 정박시키면 이것을 다시 조계지로 옮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홍예문을 힘들게 뚫은 것은, 비록 이 시기에는 내외항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긴 했지만, 만석동 해안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복이 되고 나서 홍예문은 인천의 명물로 남게 되었다. 홍예문에 올라가 연설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홍예문의 벽에 선거 벽보나 각종 홍보물을 붙이는 등 거리 게시판 역할도 특특히 했다.

4·19혁명 당시에는 홍예문이 학생들의 행진로가 되었다. 대열을 갖춘 학생들이 홍예문을 통해 응봉산 주변을 행진하며 혁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 홍예문

아홉 번째 만남

1919년 13도 대표자회의 터
[현 자유공원]

자유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서양식 공원이었다. 1888년에 조성됐다. 공원 설계는 러시아 측량기사였던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개장될 당시 자유공원은 각국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각국조계 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만국공원으로 바뀌었다가 1957년 공원 한가운데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지면서 공원 이름도 자유공원으로 고쳤다. 자유공원이 있는 산의 명칭은 응봉산이다.

자유공원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현장으로서도 활용되었다. 1919년 3월 9일, 기독교 신자를 포함한 학생 등이 만국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해산 당하였고, 응봉산 주변의 상점들은 철시를 하며 일본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항일독립운동사에서 특히 주목되었던 사건은 1919년에 있었던 13도 대표자회의의 개최였다. 이 회합을 주도했던 인물이 홍진이었다. 홍진은 지금의 자유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를 열었고, 이것은 훗날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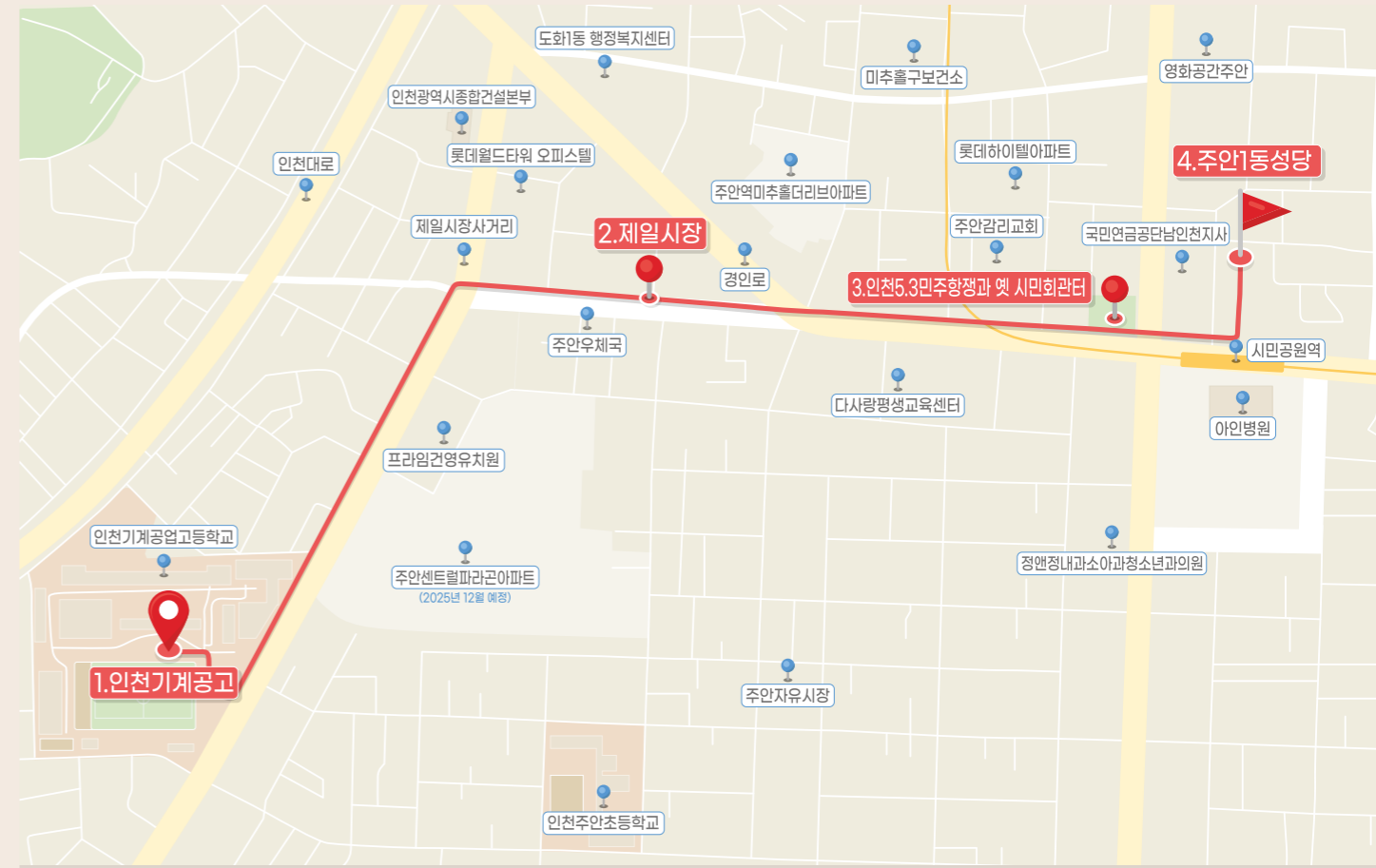
홍진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유공원에 참가하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엄지손가락에 흰 종이나 형짚을 감아 참석자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날의 회합에서 임시정부의 조직이나 국민대회 개최 등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진은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1919년 13도 대표자회의 터

8-3

응답하라 1986



체험코스

① 4·19학생의거 기념탑(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 ② 제 일시장 → ③ 인천5·3민주항쟁 터 → ④ 주안1동성당

총거리 1.5km
도보시간 1시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항쟁 #5.3 #4.19 #6.10 #노동자



8-3

응답하라 1986



인천지역의 시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면 어김없이 거리에 나와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주요한 항쟁의 터에 기념비를 세워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는 4·19학생의거기념탑이 있고, 경동사거리에도 4·19혁명 기념비가 서 있다. 인천시민회관이 자리를 잡았던 옛 시민회관 쉼터에는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고 쓴 '인천 5·3민주항쟁 터' 표석과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비'가 놓여 있다. 그리고 부평역 광장에 6월민주항쟁 표석이 있다. 여기에는 '6월의 꽃 촛불로 타오르다'란 문구와 함께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인천에 울려 퍼졌던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기억합니다.'란 문장이 적혀 있다.

이러한 기념물들은 '기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한 자산은 미래유산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4·19혁명부터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항쟁의 터를 밟아 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4·19학생의거 기념탑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4·19학생의거기념탑'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1961년에 건립됐다. '인천공업고등학교 및 경인중학교 학우회장' 명의로 세운 것이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1940년 인천공립직업학교로 개교해 1951년 인천공업고등학교로 개명했고, 1976년에 다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4·19학생의거기념탑'은 1960년 4·19혁명에 참여한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기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항쟁이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서서 거리에 나와 혁명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뒤를 이어 인천 시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모여 시위를 이어 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거리는 매일같이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로 뒤덮였다.

인천지역의 4·19혁명은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4월 19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4월 26일까지 이어졌다. 4월 27일에는 인천학우회를 중심으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인천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항쟁 이후의 상황을 정돈해 나갔다.



▲ 4·19학생의거 기념탑

한편, 이듬해인 1961년 도원동 운동장에서는 '혁명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의미심장하다. 학생들은 '자유와 진리를 위해 단결하라',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학생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년 전 자신들이 대오를 이루며 걸었던 길을 다시 한 번 행진한 후 해산하였다.

한편, 이듬해인 1961년 도원동 운동장에서는 '혁명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의미심장하다. 학생들은 '자유와 진리를 위해 단결하라',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학생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년 전 자신들이 대오를 이루며 걸었던 길을 다시 한 번 행진한 후 해산하였다.

두 번째 만남

제일시장

제일시장은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제물포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인천5·3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현장 중 한 곳이다. 특히 인천시민회관 앞으로 접근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항쟁의 길목과 같은 성격을 갖던 공간이었다. 한편으로 제일시장은 4·19혁명의 현장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도 연결된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거리를 오가며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 제일시장

또한 이곳은 인천 5공단, 6공단의 노동자들이 근처에 모여살면서 삶과 애환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다. 제일시장은 1970년에 개설됐다. 1990년대까지 호황기를 누리면서 인천지역 재래시장 중 활성화 된 시장으로 손꼽혔으나 시설 개선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 특히 시장 안의 곱창 상가는 이 시장의 명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5·3 민주항쟁 터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에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6·10민주항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시민항쟁이었다.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은 당시 인천시민회관 앞 일대였다. 지금의 옛 시민회관 쉼터이다. 이날은 신한민주당의 '헌법 개정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관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에 맞춰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수만여 명이 모여 기득권 세력의 기만성을 폭로하려고 하였다.

신민당이 추진하는 대회는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인천시민회관 주변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신한민주당 관계자들은 주안역 앞에서 인천시민회관까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며 도착했지만, 대회를 개최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돌아갔다.

인천5·3민주항쟁은 12시 30분경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돼 늦은 밤까지 주안1동성당, 주안역, 석바위 등지에서 계속됐다. 인천5·3민주

항쟁에서 모두 319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 중 1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그 뒤에도 검거와 수배가 멈추지 않았다. 구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학익동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6·10민주항쟁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민주화를 오히려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평가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비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3년,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명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비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주안1동성당

주안1동성당은 옛 시민회관 쉼터 맞은편에 있는 성당이다. 이곳은 인천5·3민주항쟁이나 6·10민주항쟁 등 시민항쟁이 일어날 때마다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거점 역할을 했던 장소이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도 이곳에서 자주 열리곤 했다.

주안1동성당은 1926년 10월 답동성당 주안공소로 시작되었다. 공소는 당시 다주면 사충리에 있던 신도 정성봉의 집에 설립되었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답동성당의 신자수가 5천 명을 넘어섰다. 성당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55년 송림동본당이 설립되었고, 주안공소의 관할 지역이 송림동본당의 관할지역에 편입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안공소는 폐지되었다. 이후 1960년 주안지역은 도화동본당에 편입되었다.



▲ 주안1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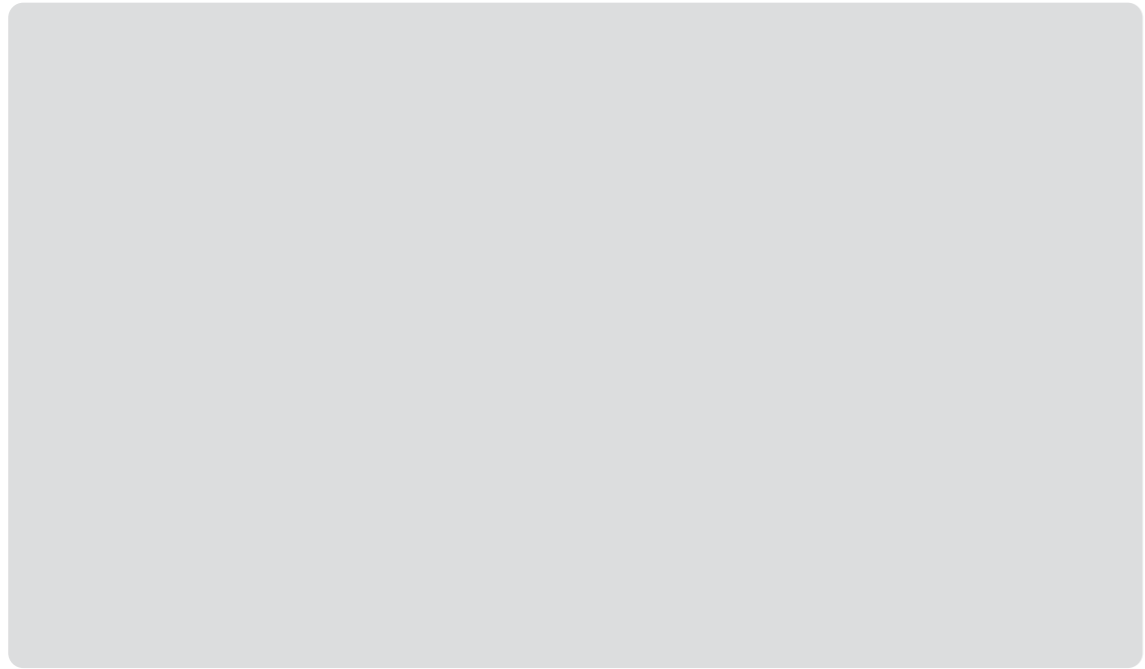
1963년, 주안본당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성당은 9월 16일에 축성되었고 텐팅거 신부가 초대주임신부로 부임해 왔다. 이때부터 현재의 위치에 주안1동성당이 자리를 잡게 됐다.

1985년 6월 1일에는 새 성당 축성식이 있었다.

주안1동성당은 설립 당시부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1963년부터 빈민촌의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예수 성명 의원의 개원으로 이어졌다. 1964년부터는 극빈자촌에서 빈민 구호 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나 주안1동성당이 어느 때보다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정부는 인천5·3민주항쟁의 계획과 실행이 주안1동성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성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주안1동성당은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 공간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답사활동

01 1960년 4·19혁명 당시 학생들이 행진을 하며 걸어갔던 경로를 약도를 그려 표시해 보고, 경로상에 있는 주요 장소를 적어보자.



02 아래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4·19학생의거 기념탑’ 비문의 내용이다. 내가 만일 그 당시의 학생이었다면 비문을 어떻게 작성했을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수정해 보자.

젊은 학도들은 겨레의 힘이요 나라의 기둥이다. 특히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 혁명을 일으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이들의 피끓는 울부짖음은 먼 하늘에 메아리 쳤고 우렁찬 발자국 소리는 지축을 흔들었나니 이 씩씩하고 장한 행동은 천추만대에 빛날 것이다. 이제 군부 혁명이 또 하나의 부패를 소탕하고 우리 앞날에 희망이 가득찬 오늘 입석기공하여 이들의 장거를 찬양하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과 융성을 기원하는 바이다. 이 공사에 홍익대학생 김창희군 한인성군의 수고와 성금을 거출하신 동창회원 여러분 특히 판초자회 사장 최태섭 어른께 감사하는 바이다.

생각해 볼 거리

민주주의는 더불어 사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공감과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항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선거다. 민주시민은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독재나 부정·부패로 인해 선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행동에 나섰다. 인천 지역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4·19혁명과 인천5·3 민주항쟁이었다. 4·19혁명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일어났고, 인천5·3민주항쟁 때 등장했던 구호 중의 하나는 직선제 개헌이었다. 학생들이 두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의 현장을 체험하며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적 행동과 독재의 사례, 학급 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며 학생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토론해 보아도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91, 천주교 인천 교구사, 천주교 인천 교구
-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 2017, 도시마을생활사(주안동),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자료

-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ichuhol>

8-4

소금밭에 피어오른 공장의 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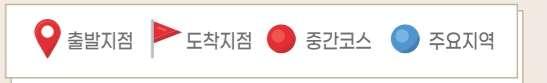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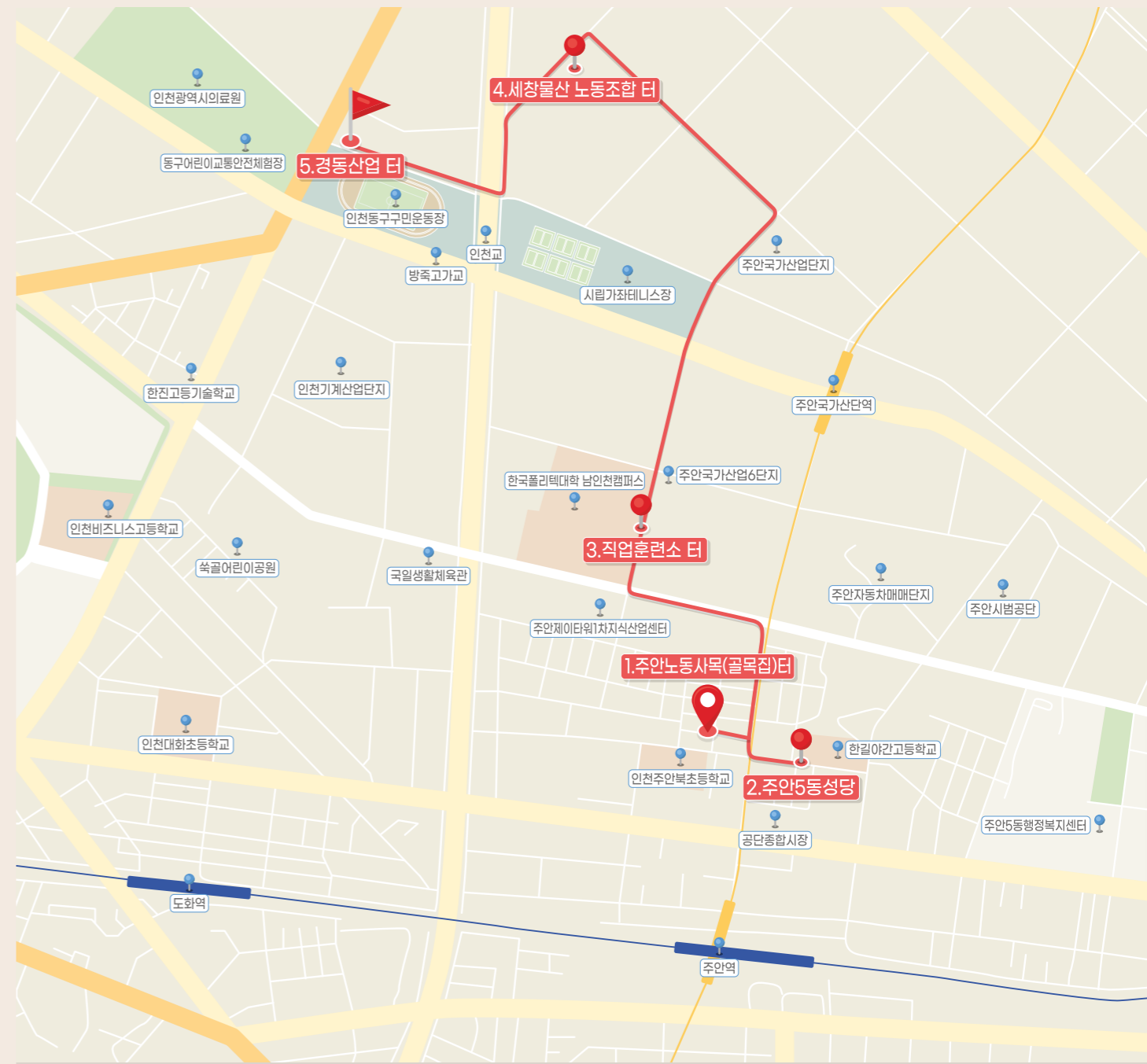
체험코스

① 주안노동사목(골목집)터 → ② 주안5동성당 → ③ 직업훈련소 터(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 ④ 세창물산 노동조합 터 → ⑤ 경동산업 터

총거리 2.6km
도보시간 1시간 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노동 #산업화 #주안공단 #세창물산 #경동산업 #노동사목



8-4

소금밭에 피어오른 공장의 불빛



주안공업단지는 주안염전을 매립해 조성한 곳이다. 부평공업단지과 더불어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노동 현장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이곳에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섰고,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은 1980년대까지 산업화를 주도하는 핵심 인력으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은 198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옆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안5동성당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하려고 했고, 주안노동사목은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그들이 서로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는 염전에 세워진 주안공업단지 위를 걸으며 노동자들의 일터와 노동자의 곁에서 함께 해 준 이들의 기억을 더듬어 가 볼 것이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만남

주안노동사목 (골목집 터)



▲ 주안노동사목(골목집 터)

주안노동사목은 주안공단 입구 주택가에 있던 곳이다. '내일을 위한 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고, 흔히 '골목집', '골목 어린이집'으로 부르기도 했다. 공단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2023년 11월, 그 앞에 '주안노동사목(골목집)'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1980년대 민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동자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진 주안노동사목(골목집)이 있었던 곳'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주안노동사목은 1986년에 설립됐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주안노동사목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모임 장소 제공이다.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모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주안노동사목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노동자들이 교류를 하며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열어주는 데 공간을 할애하였다. 두 번째는 정서 함양과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물론, 한자교실, 기타교실, 풍물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문화 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하였다. 세 번째는 현장 활동의 지원이다. 각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거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갔다.

주안노동사목은 1980년대 주안공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노동자들에게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부평노동사목 등과 통합돼 십정동의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노동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

천교구 노동사목은 2023년 노동자센터 건물에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인 '엠마오'를 여는 등 여전히 노동사목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만남

주안5동성당

주안5동성당은 '염전성당'으로 출발한 곳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옛 염전 지역, 즉 지금의 주안공단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성당이다. 초대 신부는 오리어리(William O'Leary) 신부였으며, 첫 미사는 1980년 3월 18일에 있었다. 당시 이곳에 있던 신자의 집에서 미사가 봉헌됐다. 그 후 임시성당을 거쳐 1981년 12월 18일 본당 설립 인가를 받고 성당을 신축하여 자리를 잡았다. 이때 주안5동본당의 관할 구역은 주안1동의 북쪽 지역과 도화동본당의 남쪽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초기 성당의 이름을 염전성당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염전이 있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그러한 취지에 맞게 주안5동성당은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펼쳐 나갔다. 본당 내에는 한길야간고등학교를 개설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무료 진료나 법률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모 미사와 함께 고문 근절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주안5동성당은 주안공단과 인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던 주안노동사목과 함께 노동자들이 자주 찾던 공간이었다. 노동자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정보를 교류하며 활동을 해 나갔고, 성당 역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썼다.

주안5동성당은 1980년대 지역 사회와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주안노동사목은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주안5동성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벗이 되어 주고 있다.



▲ 주안5동성당

세 번째 만남

직업훈련소 터
(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 '직업훈련소' 터(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주안공단 내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자리는 '직업훈련소'가 있던 곳이다. '직업훈련소'는 1975년 노동청 인천직업훈련원으로 처음 설립됐으며, 1994년 인천직업전문학교를 거쳐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와 별도로 중앙직업훈련원은 인천시 구산동에 있었으며 1969년 3월에 제1회 입소식이 개최되었다. 중앙직업훈련원은 현재는 한국폴리텍II대학 인천캠퍼스로 바뀌었다.

직업훈련원은 정부가 각종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한 곳으로 이곳에 입소하면 훈련생 전원이 국비로 훈련을 받은 후 각 지역의 기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인기도 많아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갈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가 기술을 습득하였다. 당시에는 흔히 '직업훈련소'라고 불렀다. 1977년 무렵 국립직업훈련원은 전국에 모두 6곳이 있었는데, 이 해 초에 수료를 한 학생들은 2,790여 명으로 중앙직업훈련원이 224명, 인천직업훈련원이 480명이었다. 그밖에 부산, 춘천, 대구, 광주에 직업훈련원이 있었다. 수료생 수로 따지면 인천직업훈련원이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978년에는 인천시 만수동에 건설기능공 양성을 위한 건설직업훈련원도 착공됐다. 그만큼 이 시기 인천지역은 산업화 시대의 중심 지역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직업훈련소'는 공장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곳 이외에도 대기업들이 별도로 세운 직업훈련원도 다수 존재했다. 현대자동차 직업훈련원, 대우중공업 직업훈련원 등이 그러한 곳이다.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이곳에 입소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었지만, 노동자로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직업훈련소를 찾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기술을 익힌 후 각 사업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네 번 째 만 남

세창물산 노동조합 터

세창물산은 주안공단 내에 입주해 있던 업체였다. 도자기 인형 등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였다. 지금은 다른 업체의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세창물산이 있을 당시의 공장 터와 건물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 1980년대 중반 이곳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200여 명 정도였고,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 중 80여 명 가량은 야간학교에 다니는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세창물산 노동자들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 특성상 인체에 좋지 않은 안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작업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회사 측에 호소해 왔다. 임금에 대한 불만도 누적되어 있었다. 결국 1988년 6월,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고 회사 측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노동쟁의를 시작했다. 회사는 곧바로 공장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세창물산 노동자들은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공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며 쟁의 행위를 이어갔고, 1989년 5월 5일에 이르러서야 해산했다. 총 244일간에 걸친 농성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장 건물에 현수막을 걸다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천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노동자들도 쉽게 끝나지 않는 세창물산 사태에 주목하며 연대의 손길을 보냈다.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장기 농성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1980년대 노동자들의 절실함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회사는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운동으로 이름을 남겼다. 당시 세창물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던 방현식은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새벽출정'이란 소설을 발표했다.



▲ 세창물산 노동조합

다섯 번째 만 남

경동산업 터

경동산업은 '키친아트'란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였다. 지금은 사라진 인천교 인근에 인천공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포크나 나이프 등 양식기와 주방용품 등을 주로 생산하였다. 경동산업은 2000년에 파산하였고, 이듬해인 2001년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해 '키친아트'란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꾼 후 노동자 자주관리회사로 운영 중이다.



▲ 경동산업 터

경동산업 공장은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작업 공정상 프레스 기계를 자주 다루고 연마를 하는 공정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경동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회사 측과 협상을 벌여 나갔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고, 노동자들에 대한 압력은 점점 가속화되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89년 9월 4일이었다. 지금 키친아트 건물 앞에는 '경동산업 노동열사 추모비'가 서 있다. 이 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비문에는 '고 강현중 열사, 고 김종하 열사, 고 최웅 열사'란 이름이 적혀 있고, '1989년 9월 4일 경동산업(주)에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위해 산화해 가신 열사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고자 이 비를 세웁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건립일은 2006년 9월 4일이다.

경동산업 터는 1980년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다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지역의 대표적 노동운동 현장이다. 그러한 아픔을 딛고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회사를 살려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공간이다.

답사활동

01 노동의 의미에는 몸을 움직이는 육체적 활동과 머리를 쓰는 정신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나의 장래 희망직업을 적어보고, 그 직업에서 일을 하는 활동도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나의 희망직업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없는 이유

02 답사 장소에서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당시 노동자들의 고민을 상상해 답사노트에 적어 본 후,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장소

가상 인터뷰	해결책

생각해 볼 거리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육체적 활동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정신적 활동도 포함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머리를 쓰는 행위이지만, 그것을 노동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생존과 생활을 위해 임금을 받고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인천지역에는 부평, 주안 등지에 1960년대부터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밖에도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업지대가 있다. 이러한 곳들은 학생들의 노동교육을 위해 훌륭한 교육 현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일터인 공장들을 둘러보면서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더불어 감정노동자거나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자.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해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인천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91, 천주교 인천 교구사, 천주교 인천 교구
- 민주평화인권센터, 2014,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평화인권센터

인터넷 자료

-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ichuhol>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http://www.kopohistory.com/>

8-5

부평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목소리



체험코스

① 부평남부역 → ② 철도관사 터 → ③ 미쓰비시 부평공장
과 히로나카상공 도로 → ④ 다다구미 터 → ⑤ 인천육군
조병창 터와 철도지선 → ⑥ 캠프마켓 → ⑦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 ⑧ 신촌

총거리 2.9km
도보시간 2시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평화 #강제동원 #부평공원 #인천육군조병창 #징용노동
자상 #평화의 소녀상



8-5

부평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목소리



1899년에 경인철도가 개통됐다. 우리나라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철도이다. 부평역도 이때 함께 생겼다. 철도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붓짐을 메고 걸어가거나 우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생활이 기차 시간에 맞춰 가까운 역을 찾아가는 생활로 바뀌어 갔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쌀이나 석탄 같은 화물은 물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제는 기차에 실어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 있었다. 근대는 속도의 시대이기도 했다. 부평역이 생기면서 인근의 사람과 화물이 모두 부평역에 모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부평역은 지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전까지 부평지역의 중심지는 계양산 아래쪽에 있던 부평도호부 관아 주변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로가 생기고, 상점이 들어서고, 극장이 생겼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일본은 부평을 군사도시로 바꾸어 갔다. 일본군의 무기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되더니 히로나카상공 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다. 부평은 점차 노동자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 갔고, 전쟁이 치열해지자 강제로 사람들이 동원됐다. 부평지역의 공장들은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강제동원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철도의 등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과 전쟁으로 인해 바뀌어 버린 도시의 모습을 따라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세운 부평공원의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도 만나게 될 것이다.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만남

부평 남부역



▲ 부평남부역

부평역은 제물포 해안의 언덕 아래에서 시작해 한강을 넘어 서울로 들어가는 경인철도 위의 역이다. 1876년에 조선이 개항을 하고, 1883년에 제물포가 개항장이 된 후, 열강의 압력이 속도를 더해갈 즈음인 1899년에 경인철도 일부 공사가 끝나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부평역도 영업을 시작했다. 때는 조선정부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하며 광무개혁이란 이름으로 근대국가로 진입을 시도하던 무렵이었다. 이미 몇 년 전인 1894년에 갑오개혁을 경험한 바 있으나, 개화파의 비호 속에 일본인 고문관들이 각 부서에 진을 치고 앉아 지휘하던 당시의 개혁 광풍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광무정권은 갑오개혁의 오류를 발판으로 삼아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며, '구본신참(舊本新參)'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열강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고 집요했다. 결국 대한제국은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이 초래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일본에 침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보호국과 식민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식민지 하에서의 철도는 수탈의 상징이었다. 일본은 통감부 시절부터 조선의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였고, 이것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완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1920년대에 추진된 산미증산 정책은 우리나라를 일본을 위한 식량공급기지로 전략시키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 침탈을 지속해 가는 와중에도 철도를 계속 확장해 갔다. 동시에 항만과 해운의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훗날 수인선과 경경선 등, 조선을 종횡으로 잇는 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쌀은

물론, 소금과 강원도 오지의 자원까지 철도를 통해 실어 나르며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갔다. 부평역은 인천항과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도 인접한 탓에 한반도 북부 지역은 물론 대륙으로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서도 꽤 중요한 곳이었다.

부평역은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은 1931년에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을 잇달아 일으키며 대륙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고, 1937년의 중일전쟁을 통해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어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더욱 확장시켰다.

전쟁이 가속화 되면서 부평역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육군조병창이다. 도로도 확장되거나 개설됐다. 특히 부평남부역은 부평 도심에서 철도의 남북을 잇는 거의 유일한 도로였다. 지금은 막혀 있지만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길의 흔적을 회미하게나마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의 변화 과정을 이 역을 통해 추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만남

철도관사 터

부평남부역 바로 앞에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관사 터가 남아 있다. 부평북부역과 부평남부역을 잇는 철도 남쪽에 위치한 공간이다. 당시의 가옥은 대부분 철거되었고 지금은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한 채만은 여전히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서 철도관사 단지가 조성될 무렵의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유일하게 남은 철도관사 건물은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철도관사는 아직 정확한 건립 연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는 16채 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층의 일본식 가옥 구조로 조성되었다. 철도관사에는 철도 업무를 전담하던 조선 총독부 소속의 관리들이 거주했으며 대부분 일본사람들이었으므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 여기에 살던 일본인들이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철도관사 부지의 서쪽 끝에 위치한 언덕 위에는 당산나무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언덕을 지나 200m 가량을 내려가면 인천부평



▲ 철도관사 터

남초등학교가 나오고 대략 이 일대부터 '삼릉' 마을이라고 부른다. '삼릉'은 일본어로 '미쓰비시'라고 읽으며 일제강점기에 히로나카상공 사택을 거쳐 미쓰비시 사택이 자리를 잡았던 구역이다.

철도관사는 부평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건립되었다. 대전 철도국장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영주역 일대 관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철도관사가 갖는 도시생활사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평남부역 앞에 있는 철도관사는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평역 일대에 유일하게 남은 철도관사 건물이란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철도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갔던 도시변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세 번째 만남

미쓰비시 부평공장과 히로나카상공 도로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으로 유명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징용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던 대표적인 기업 중 한곳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한자로 '삼릉(三菱)'이라고 쓴다. 그래서 미쓰비시가 만든 사택을 '삼릉 사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평역 인근에도 미쓰비시 사택이 있었다. 본래 히로나카 사택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미쓰비시가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을 인수한 뒤에 미쓰비시란 이름으로 정착됐다. 히로나카 사택은 구내사택(構内社宅)과 공원사택(工員社宅)으로 나뉘어 있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사택이 공원사택이고, 이것은 다시 건립된 시기에 따라 구사택과 신사택으로 구분해 불렀다. 구사택은 모두 철거됐고, 신사택 역시 최근에 대부분 헐려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구내사택은 공장 안에 있던 사택이다. 즉, 지금의 부평공원 안에 있던 것이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역시 부평공원에 위치해 있었다. 근래까지 공장 건물이 그대로 있었으나 2002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라졌다. 현재 부평공원 내에서 히로나카상공이나 미쓰비시 공장의 흔적을 찾는 건 어렵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은 1938년 무렵에 건설됐다.



▲ 히로나카상공 도로(위) / 광복 직후 미쓰비시 공장과 미쓰비시 사택(아래)

광산기계나 토목용 기계 등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직원이 1,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꽤 컸다. 하지만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1942년에 미쓰비시중공업에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광복 때까지 미쓰비시제강(주) 인천제작소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됐다.

미쓰비시 공장은 부평역과 철도로 연결돼 있었다.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공장 내에서 곧바로 철도에 실려 수송될 수 있는 구조였다. 철도 옆에는 '히로나카상공 도로'라고 부르는 전용 도로도 마련됐다. 부평지역의 유지인 아베가 기증한 도로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터가 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공장 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네 번 째 만 남

다다구미 터



다다구미 터

‘다다구미’는 일본 회사 이름이다. 그것이 그대로 마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굳었다. 다다구미는 한자로 ‘다전조(多田組)’라고 쓴다. 지금도 일본에서 운영되는 건설업체다. 부평지역에서 다다구미라고 하면 대개 북인천우체국 뒤편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당시의 건물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다. 현재의 마을은 한국전쟁 후 형성됐다.

다다구미를 설립한 이는 일본인 다다(多田嘉作)였다. 부평에 있던 것은 ‘다다구미 마쓰다(松田張一) 사무소’라고 불렀다.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천육군조병창과 마주보고 있었다. 다다구미는 1939년 인천육군조병창 공사가 진행될 때 그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였고, 징용노동자들도 이곳에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평지역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회사들 중에 다다구미와 비슷한 성격의 일제강점기 건

설업체는 시미즈구미(清水組), 다마보구미(玉操組), 간토구미(關東組), 하자마구미(狹間組) 등이 있다. 부평지역에 들어서는 공장들의 건설을 맡았던 회사들이다.

다다구미는 일본식 명칭이라고 해서 광복 후 ‘평화촌’이란 새 이름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명칭이 너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육군조병창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후 이곳은 기지촌으로 변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의 일부는 기지촌 시절의 것들이다.

다다구미 지역은 굴포천과 맞닿아 있어서 이곳에 들어선 주택들의 외벽은 하천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한 형태의 집들이 굴포천을 따라 부평구청 인근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최근 굴포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하천변 가옥들은 대부분 철거되어 사라졌다.

다섯 번 째 만 남

인천육군 조병창 터와 철도지선



인천육군조병창 철도지선

부평역에는 두 개의 철도지선이 연결돼 있다. 하나는 굴다리 인근에서 일신동 방향으로 연결된 지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기지 터 담장을 따라 장고개로 이어지는 지선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기에 더해 미쓰비시제강(주) 부평공장 안으로 연결된 지선이 하나 더 있었다.

장고개로 향하는 철도지선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을 잇던 선로였다. 현재는 미군기지 터 밖에 놓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군기지가 캠프마켓으로 축소되는 1970년대 이전에는 철로가 있던 곳이 미군기지의 중심부였고, 따라서 인천육군조병창 시절에도 공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노선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과 연결된 이 철도지선을

통해 무기들이 수송되고 징용노동자들이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 끝은 장고개 바로 밑까지 연결돼 있었다. 그곳 역시 일본군 군수기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에 문을 연 일본군의 군수공장이었다. 소총과 같은 총기류나 도검 등을 만들던 곳이다. 1942년에는 일신동 쪽에 평양병기창 부평분창도 건설됐다. 비슷한 성격의 무기생산기지인데, 이곳에서는 전차나 자동차 등을 만들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되기 이전의 해당 부지는 부평연습장이었다. 일본군들이 와서 사격연습을 하던 곳이다. 주로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간혹 일본군 육해공군이 동원되는 연합훈련도 시행되었다. 부평연습장은 늦어도 1920년대부터는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보다 앞서 1910년대부터 군사훈련장으로 지정됐을 가능성도 크다. 훈련장에는 관리자가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광복 후 미군이 접수하면서 그대로 미군의 군수기지로 변화였다.

여섯 번째 만남

캠프마켓

캠프마켓은 미군기지다. 광복 직후부터 최근까지 미군들이 주둔해 있었다. 현재는 공여구역 반환받아 토양정화 등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캠프마켓의 전신은 애스컴 시티(ASCOM CITY)이고, 애스컴 시티는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에 조성된 미군의 군사기지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일부 구역은 그 전에 있었던 부평연습장 부지를 넘겨받아 조성됐다. 100여 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해 왔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땅이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에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군이 운용하던 시설을 하나씩 접수해 갔다. 부평역 앞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도 곧 미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미군은 이곳을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애스컴 시티란 이름을 붙였다.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 안에는 반공포로수용소도 설치됐다. 부평 제10포로수용소였다. 1953년 6월 18일, 유엔군과 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승만 대통령은



▲ 캠프마켓

이들에 걸쳐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하지만, 부평지역에서는 이 날의 석방 조치가 실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의 석방 소식을 알게 된 부평 제10포로수용소 내의 반공포로들은 탈출을 감행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73년부터 애스컴 시티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캠프마켓만 남게 되었다. 기지가 축소되자 미군기지에서 근무를 하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미군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새 일자리를 찾았다.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부평지역의 경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캠프마켓은 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일곱 번째 만남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은 부평공원 안에 있다. 동상들을 이곳에 세운 것은 일제강점기 부평공원 자리에 일본기업인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징용노동자들이 끌려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전범기업 중 하나이다. 그러한 공장이 있는 곳에 피해자들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과거를 잊지 말고 되새기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부평지역은 각 지역에서 강제동원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 안에 있던 공장은 물론이고,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돼 길을 정비하고 건물을 지었다. 강제동원은 다른 공장들에서도 행해졌지만, 특히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운영하던 군수공장이었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집단

으로 동원되던 장소였다. 학생들은 1944년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 공포된 이후 학교를 가는 대신 공장에 들어가 기계를 돌렸다.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보국대’ 등의 이름으로 끌려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작업에 투입되어야 했다.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학생들은 인천공립공업학교나 인천공립상업학교 등 다수의 학교에서 인솔되어 와 남자들은 조병창 안 기숙사에, 여학생들은 일감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 대신 일을 하며 광복을 맞이해야 했다.

일본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인력, 물자,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전황이 점차 어려워지자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하여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일을 하던 학생들이 전선으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은 2017년 8월 12일에 제막식을 거쳐 건립되었고, 평화의 소녀상은 한 해 전인 2016년에 세워졌다.

여덟 번째 만남

신촌



▲ 캠프마켓 안에서 바라본 신촌 전경

신촌(新村)은 ‘새마을’이다. 부평지역에서 신촌은 백운역 인근, 굴포천의 지류와 맞닿아 있는 부평공원 서쪽 마을 일대를 가리킨다.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1930년대 무렵이었다. 부평역 인근에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한 큰 공장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며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겼다. 신촌은 굴포천의 지류를 사이에 두고 미쓰비시제강 부평공장과 마주보고 있었고, 반대편은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였다.

신촌은 광복 후 미군이 인근에 주둔하면서 기지촌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에는 부평지역 여러 곳에 기지촌이 형성됐는데, 대표적인 곳이 영단주택이 있던, 지금의 산곡1동 일대의 기지촌과 미쓰비시 사택이 있던 삼릉 기지촌, 그리고 신촌이었다. 그 중 신촌 기지촌의 규모가 가장 컸다.

기지촌은 미군을 대상으로 상업 활동을 해 나가던 곳이다. 따라서, 신촌에는 미군과 연결된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전파돼 들어왔다. 특히 서양 대중음악의 유입 속도가 빨랐다. 신촌 기지촌을 통해 연주자 등 음악인으로 성장한 이들도 적지 않다. 부평구는 이러한 과거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1970년대 신촌 인근 미군기지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촌 기지촌의 성격도 바뀌어 갔다. 미군이 주둔하던 곳에 이제는 한국군 부대가 자리를 잡기도 했다. 한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기지촌 경제는 새로 들어선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단 경제로 빠르게 변화되어 갔다. 부대가 공원으로 바뀌고 아스팔트로 덮였던 굴포천이 복원되어 가면서 신촌도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 중이다.

답사활동

01 아래의 사진은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이다. 동상의 모델이 된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두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답사노트에 적어보고, 동상의 모델이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0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4행시를 지어 보자.

강

제

동

원

생각해 볼 거리

일제강점기의 부평은 공업도시이자 군사도시였다. 부평역 인근에 건설된 인천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등 일본 자본을 끌어와 세운 공장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에 등장한 공장들은 강제동원의 현장이기도 했다. 많은 조선인들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용'되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징용된 사람들은 일본, 중국, 남사할린, 동남아시아 등 국외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한반도 내의 작업장에 강제동원된 사람들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희생을 당한 사람들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반도 내의 작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징용노동자들은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부평지역의 공장들은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흔적만 남은 공장 터에서 국내 징용자들과 국외 징용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직 끝나지 못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고통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 관영주택과 사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부평역사박물관, 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 부평역사박물관, 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 이규원, 1948, 해방공장
-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인천건립추진위원회, 2017, 인천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건립 백서,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인천건립추진위원회

인터넷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https://www.fomo.or.kr/>

8-6

표지석으로 탐방하는 부평공단



체험코스

① 갈산역 → ② 부평국가산업단지 → ③ 삼원섬유 표지석
→ ④ 옛 대우자동차 서문 → ⑤ 백마교회 터 → ⑥ 부평노동사목 터

총거리 3.3km
도보시간 2시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노동 #부평국가산업단지 #산업화 #노동사목 #삼원섬유



8-6

표지석으로 탐방하는 부평공단



여기서는 1969년에 공장들이 입주를 시작한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와 그 주변을 둘러보게 될 것이다.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는 흔히 4공단이라고 부른다. 부평구 효성동의 넓은 농경지 위에 공단을 세웠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일 자리를 얻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들의 수도 증가했다. 이 무렵 부평지역은 미군기지가 해체되며 기지촌 경제가 축소되던 때였고, 그 빈자리를 부평공업단지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채워 갔다. 노동자들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도시를 만들어 갔고, 그 흔적은 일터인 부평공업단지와 삶터인 인근 거주지, 그리고 거리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새나라자동차, 신진자동차, 대우자동차를 거치며 부평공업지대의 터줏대감으로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삼원섬유 공장터 역시 지금은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1970년대 초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상황을 들여다 보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공업단지는 산업화를 이끈 동력이면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던 일터였다. 공업단지 안을 거닐며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갈산역



▲ 갈산역

갈산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에 속한 역이다. 1999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부평공업단지 초입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인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와 연결돼 있다. 역과 맞붙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청천천이 흐르던 곳이다. 본래 복개되기 전의 하천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북쪽 경계를 따라서 장수산 방향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 동쪽 일부만 미복개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 구간이 갈산천에 연결돼 굴포천으로 유입된다.

갈산역은 청천동과 갈산동의 경계선에 위치한다. 크게 봤을 때 청천동 쪽에 흔히 부평4공단이라고 부르는 부평공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갈산동 일대에는 부평4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형성돼 있었다. 갈산역 인근에 있던 공장으로는 삼익약기, 태연물산, 진도 등이 있었다.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자리가 1980년대 삼익약기 제조공장이 있던 곳이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나란히 경인고속도로 방향을 따라 태연물산, 진도, 롯데칠성음료, 한독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청천천과 갈산천이 만나는 곳 인근에는 한독금속 공장도 위치해 있었다.

갈산역 일대는 경인고속도로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부평대로의 길목에 해당한다.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건 1968년이었고, 이듬해에 인천항 제2도크까지 연결돼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 경인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게 1969년 7월 21일이었는데, 이날은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한 날과 같았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디던 날이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처로 경인고속도로는 당시 '아폴로 하이웨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부평4공단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부평나들목이 함께 만들어졌으며, 나들목 근처에는 부평정수장도 위치해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은 농경지였던 갈산역 주변이 큰 변화를 겪던 때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갈산역 일대는 부평4공단을 비롯한 인근 공장지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연결된 공간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단의 기능도 많이 변화되었고, 주거지의 모습도 대부분 바뀌었지만, 이곳의 공장 노동자들은 이 일대를 오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산업화 시대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터인 공장뿐만 아니라 삶터인 공장 밖의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갈산역과 그 주변은 산업화의 역사를 품고 있는 중요한 공간 중의 한 곳이다.

두 번째 만남

부평국가산업단지



▲ 부평공업단지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는 1966년 4월 8일에 공사가 시작됐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착공된 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부지는 인천시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에 걸쳐 있었고, 부평정수장과 부평변전소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전력이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 게다가 이듬해인 1967년부터는 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어서 인천항까지 연결된 도로망도 갖추게 되었다.

단지 내 입주 업체는 1966년에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한국인테리어화학의 3개 회사가 처음 지정된 이후, 1968년에는 모두 50여 개로 늘어나며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공업단지로 자리

를 잡게 되었다.

부평지역에 공단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후 재건기를 거쳐 온 정부는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 체제의 구축을 꾀하며 수출산업공단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곧 부지 물색에 나섰는데, 이와 동시에 부평지역 내에서도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4년 10월, 서울의 구로동 일대가 첫 번째 수출산업공단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에 부평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공단 유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65년에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어 이듬해 부평제1수출산업공업단지가 착공됐다. 부평공단은 1971년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한국수출산업공단과 합병됨에 따라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후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는 흔히 부평4공단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가 착공되던 시기는 부평지역이 '기지촌 경제'로 변성하던 때였다. 광복 후 주둔한 미군기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유통됐다. 그러던 것이 부평공단의 건설과 함께 '공단 경제'로 급속히 바뀌어 갔다. 마침 1970년대 초부터 부평지역에 있던 미군기지가 이전, 축소되면서 기지촌 경제가 점차 하향길에 접어들었고, 지역 내의 노동자들도 미군기지나 기지촌 노동자들에서 공단 노동자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갔다. 산업화 시대 지역의 경제를 책임졌던 공단 노동자들은 경제 개발이란 구호 아래 쉽게 외면 당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주화운동 시기에도 주력 계층으로 참여해 갔다. 그 흔적들이 공장 터는 물론, 공단 주변의 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세 번째 만남

삼원섬유 표지석

부평공단 내에 있던 삼원섬유 부평공장은 삼원섬유 주식회사와 일본삼원이 합작해 건설한 공장이었다. 1969년 4월에 입주 업체로 지정됐고, 1970년부터 공장 가동이 시작됐다. 삼원섬유는 봉제공장이었다. 이른바 '요꼬' 기계를 돌리는 '요꼬 공장'이었다. 생산품 전량은 해외로 수출됐다. 공장은 그리 오래 운영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으며, 1975년에 샤프데이터 주식회사가 같은 자리에 이전해 왔다. 샤프데이터 공장 역시 지금은 다른 기업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 삼원섬유 터

삼원섬유 부평공장에서 사용됐던 요꼬 기계는 옷감을 짜는 편직기를 말한다. '가로 횡(橫)자'를 써서 횡편기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한자 '횡(橫)'의 일본어 독음인 '요꼬'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렸다. 섬유산업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었다. 부평공단 내에도 섬유공장들이 꽤 있었고, 인력이 항상 부족할 정도로 생산물량이 많았다. 그만큼 섬유공장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작업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조합도 결성됐다.

삼원섬유 부평공장은 이곳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유동우가 직접 쓴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란 책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잡지에 연재됐던 글을 묶어 1978년에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당시에는 현장 노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내보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소작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요꼬 노동자로 성장해 가는 모습은 당시 노동자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책은 곧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유동우는 또한 1973년에 삼원섬유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일로 후에 해고를 당했다. 부평공단이 자리를 잡아 가던 1970년대 초는 아직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때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며 선구적으로 나섰다던 삼원섬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운동은 우리나라 노동사에 큰 발걸음으로 남아 있다.

네 번째 만남

옛 대우자동차 서문

한국GM 부평공장은 새나라자동차, 신진자동차,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을 거친 곳이다. 한국 근현대 자동차 공업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면서 198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 공간으로 남아 있는 장소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에는 일본 기업인 국산자동차 공장 등이 있었고, 일신동에 있던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 등에서도 군용 자동차 등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부평지역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1962년 새나라자동차 부평공장이 들어선 이후이다. 새나라



▲ 옛 대우자동차 서문

자동차는 제일교포인 박노정이 설립한 회사였다.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 P310'을 분해된 형태로 들여와 '새나라'란 상표를 붙여 생산했다. 아직 조립 공장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다. 그 후 1965년에는 신진자동차가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해 부평공장을 운영했다. 신진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는 코로나, 크라운, 퍼브리카 등이었다. 이어서 1972년부터는 GM Korea가, 1976년에는 새한자동차가 공장의 주인이 되었고, 1983년부터 대우자동차로 이름이 바뀌었다.

1985년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였다. 대우자동차는 대규모 공장이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신진자동차 시절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1985년의 임금인상 요구 때에는 상황이 달랐다. 노동자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성공 사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의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섯 번째 만남

백마교회 터

'광야교회터, 백마교회터' 표지석이 있는 곳은 광야교회와 백마교회가 위치했던 장소로,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기 노동자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권리 향상을 위해 함께 활동했던 공간이다.

광야교회는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교회다. 당초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는 선교지역을 확장할 목적으로 1972년 10월에 부평지역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6곳의 공장에서 6명의 노동자를 선발해 교육훈련을 진행한 후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광야교회의 첫 예배는 11명이 모여 진행하였고, 1977년 무렵에는 교인 수가 54명으로 늘어났다.



▲ 백마교회 터

광야교회는 부평지역의 '산업목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다. 인천 지역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교회들이 꽤 있었는데, 일꾼교회, 송현산 마루교회, 사랑방교회, 해인교회, 샘터교회 등이 노동자와 빈민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목회 활동을 이어갔던 곳들이었다.

광야교회는 후에 백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두 교회 모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상담이나 진료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였고, 백마교회의 경우는 부평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도 함께 운영하였다. '열매배움터'란 이름으로 열렸던 백마교회 야학은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안내를 해주기도 했다. 야학은 대략 1987년 무렵까지 운영되었다.

광야교회나 백마교회는 부평공단에 인접해 있으면서 종교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나갔다. 각기 다른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 장소이기도 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많은 지역 노동활동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안정된 공간 없이 운영되던 부평노동사목은 1988년, 산곡동 천주교회 뒤편에 '새날의 집'을 마련하며 정착했다. 지금의 '부평노동사목(새날의 집) 터' 자리다. 새날의 집은 1999년 노동자인성센터로 전환되었는데, 건물 역시 이 때 헐린 후 다시 건축되었다.

부평노동사목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어 주었다. 부평공단의 노동자들은 이 공간을 거치며 자아 존중과 권익 향상 등에 대해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부평노동사목 역시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며 목표와 방법 등을 전환시켜 갔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는 초기의 설립 목적은 여전히 지켜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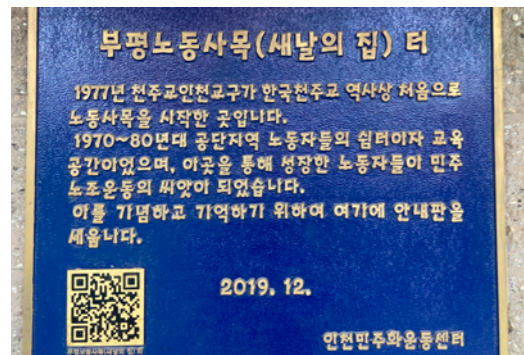
여섯 번째 만남

부평노동사목 터

부평노동사목은 1977년부터 시작됐다. 메리놀 지부장 신부와 인천 교구장의 합의를 거쳐 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범 당시 사목팀은 평신도 1명, 사제 1명, 그리고 수도자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노동자로서 경험을 갖고 있는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노동사목을 위한 장소는 일반 가정집을 임대해 사용하였다.

부평노동사목의 목적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데 있었다. 노동자들이 종교를 초월해 '노동사목집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성교육, 상담, 노동조합 활동 등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러한 활동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현장의 인간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부평노동사목이 출범한 후 처음 진행한 것도 노동자들을 위한 '자발교육'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 부평노동사목 터

답사활동

01 아래의 표지석이 서 있는 장소가 부평공단의 노동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인지 내용을 요약해 적어보자.



[Blank dashed box for notes]



[Blank dashed box for notes]



[Blank dashed box for notes]

02 부평공단 내에 있는 공장들의 간판을 조사해 나열해 보고, 어떤 업종의 공장들이 가장 많은 지 통계를 내보자.

[Large blank area for notes and statistics]

생각해 볼 거리

노동자는 헌법에 의해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 받는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노동권을 보장하였고,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부여된 노동기본권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 이 권리를 지키려고 애써 왔다. 노동자들은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여러 권리들을 함께 보장받는다. 노동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인 여가 활동은 물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가진다.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 주변에는 이와 관련해 백마교회 터와 부평노동사목 터 같은,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산들이 함께 남아 있다. 일터인 공장만이 아니라 공장 밖 생활 역시 노동 역사의 한 부분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벗어난 삶터에서 어떠한 일상을 보냈는지 상상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부평사편찬위원회, 2017, 부평사, 부평사편찬위원회
- 김현석, 2018,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인터넷 자료

-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s://www.kdemo.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 에큐메니안 <http://www.ecumenian.com/>

8-7

염하에 흘러간 소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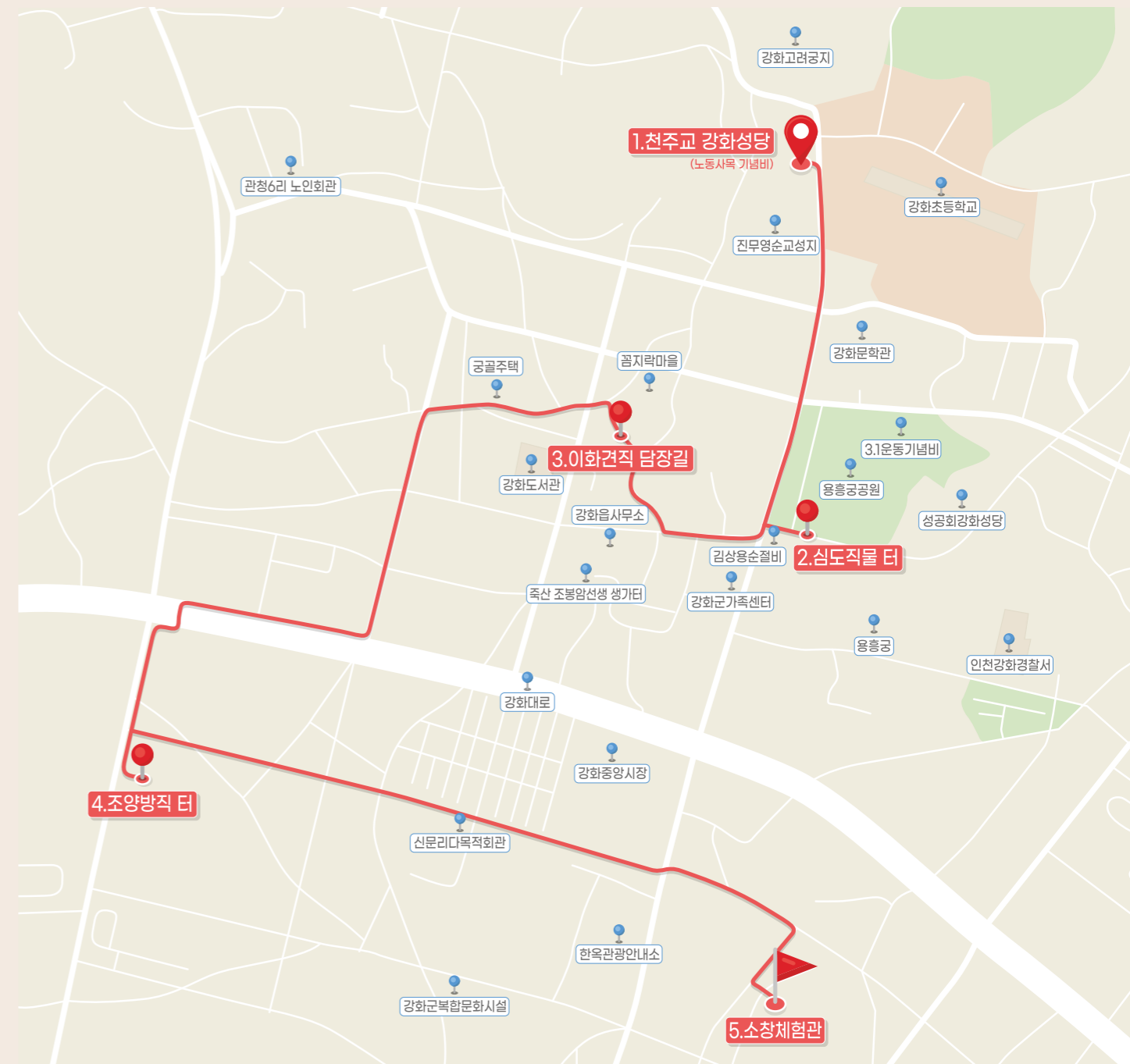
체험코스

① 천주교 강화성당(노동사목 기념비) → ② 심도직물 터
→ ③ 이화견직 담장길 → ④ 조양방직 터 → ⑤ 소창체험관

총거리 1.6km
도보시간 1시간 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노동 #노동사목 #직물 #강화 #조양방직 #소창



8-7

염하에 흘러간 소창의 역사



강화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 생산지였다. 수십 개에 달하는 직물공장들이 강화도 곳곳에서 기계를 돌렸다. 심도직물, 평화직물, 이화견직, 남화견직, 동광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공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와 한몸이 되어 강화도의 전성기를 이끌어 갔다. 강화도에 근대식 직물공장이 들어선 건 조양방직이 처음이었다. 1935년에 설립된 회사다. 강화도의 견직물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유명했지만, 가내수공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을 공장형 산업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 조양방직이었다. 하지만, 공장형 생산으로 바뀌고, 직물산업이 번창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의 부속품처럼 기계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지 않았고, 효율성이란 구호 아래 인간다운 삶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일부 종교와 사회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지나며 강화도의 직물산업은 사양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문을 닫는 공장들이 생기기 되었다. 더 이상 기계가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점차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던 것을 최근 들어 공장의 건물을 살려 체험관을 만들거나 조형물로 탈바꿈 시키고 카페로 재단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화직물, 이화견직, 조양방직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 장에서는 강화도의 대표 산업이었던 직물산업의 현장들을 둘러볼 것이다. 강화도 직물산업의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던 방직 노동자들의 자취를 쫓아가 보자. 노동을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과거의 공장을 체험관 등으로 재탄생 시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천주교 강화성당 (노동사목 기념비)

2021년, 천주교 인천교구는 ‘가톨릭 노동사목의 시작’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 표석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글귀가 적혀 있는 기념조형물을 만들어 강화도에 세웠다. 1960년대에 발생했던 ‘심도직물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심도직물 공장 터에 세웠지만, 지금은 강화성당의 ‘진무영 순교 성지’ 마당으로 옮겼다.

진무영 순교 성지는 1868년에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곳이다. 기념조형물에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의 구절이 적혀 있다. 그리고 ‘가톨릭 노동사목의 시작’ 표석에는 ‘이곳은 1968년, 산업화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던 심도직물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가톨릭 노동청년회는 1958년부터 시작된 모임이다. 흔히 지오쎬[JOC]라고 부른다. 지오쎬는 쥬네스(Jeunesse : 젊은), 우브리에(Ouvriere : 노동), 크리디안(Chretienne : 기독교)의 붙여 약자다. 1925년에 벨기에 출신의 요셉 까르맹 추기경이 처음 만들었다.



▲ ‘가톨릭 노동사목의 시작’ 표석과 기념조형물

천주교회가 심도직물 사건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공장에서 일하던 지오쎬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서 촉발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회가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로소 첫 발을 내디뎠다는 자각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 천주교 노동사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조형물은 표석 뒤에 서 있다. 여성노동자가 씨앗을 날리는 모습과 십자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만남

심도직물 터

심도직물은 강화도 직물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방직공장이었다. 1968년, 이곳에서 ‘심도직물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였다. 이에 앞서 심도직물 노동자들은 1967년 5월 14일에 섬유노조 심도분회를 결성했는데, 노조 결성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천주교 강화본당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었다. 당시 본당의 주임신부인 전 미카엘 신부가 지도를 맡고 있던 때



▲ 심도직물 터

였다.

심도직물의 노동조합은 금세 가입자 수가 늘었다. 1,200여 명의 직원 중 9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 측에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지 관련된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후 공장을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1968년 1월 8일, 강화도 내에 있던 21개의 직물회사들이 모여 앞으로 JOC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해 언론에 발표했다. 이때부터 천주교회와 직물회사들과의 대립이 시작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는 1월 18일 '특별메시지'를 발표해 '교회가 강화에서 발생한 사건에 접하여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노동자들을 배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의미였다. 김수환 추기경도 주교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JOC의 총재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성명서의 요지는 '교회는 그리스교적 사회 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목자로서의 신부는 그럴 의무가 있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사건이 커지면서 정치권까지 관심을 기울이자 직물회사들이 1월 22일, 기존의 결의문을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심도직물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천주교회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천주교회가 사회에서 맡아야 할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심도직물 공장은 철거되고 그 자리는 용흥중 주차장으로 변했다. 공장에 있던 굴뚝만 기념물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이화견직 담장길



▲ 이화견직 담장길

이화견직은 1953년에 설립된 직물 공장이다. 강화읍 관청리에 있었다. 직원이 한때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공장이었다. 건물만 해도 16동에 역직기는 56대가 있었다. 설립자는 남궁형이다. 지금 공장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담장만 일부 남아 있다. 거기에 공장과 공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스토리보드로 조성해 놓았다.

이화견직이 운영되던 때에 강화도에는 심도직물을 비롯해 이화견직, 조양방직, 평화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공장들이 여럿 가동되고 있었다. 스토리보드에는 이러한 강화도 직물의 역사가 사진 등으로 소개돼 있다.

네 번 째 만 남

조양방직 터



▲ 조양방직 터

조양방직은 1935년에 설립된 방직회사이다. 지금도 공장 건물은 일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카페로 활용중이다. 조양방직은 홍재목, 홍재용 형제가 세웠다. 그후 1942년에 삼정물산 출신 이세현에게 인수됐다. 조양방직의 뒤를 이어 강화도에는 방직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강화도를 직물산업의 전성기로 이끄는 데 토대가 되었다.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인조견은 원래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수공업으로 생산된다는 게 한계였다. 수공업의 한계를 넘어 근대식 공장을 세우며 등장한 것이 조양방직이었다. 근대식 기계를 이용해

강화도에서 인견을 생산하는 건 조양방직이 처음이었다.

건립 당시 공장은 직원들의 숙소와 휴게소 등도 함께 만들었고, 일본인 기사를 고용해 공장 건축을 맡겼다고 한다. 지금도 조양방직 터에 가보면 건물의 기본골격이나 작업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건물의 낙성식은 1937년 4월 10일에 있었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조양방직은 1958년에 폐업하고 공장문을 닫았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2018년에 카페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창체험관은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관에는 강화도에 있던 옛 방직공장들의 사진과 베틀, 미싱 등은 물론, 평화직물에서 생산됐던 직물 등이 전시돼 있다. 체험관에서는 직접 소창을 이용해 손수건 등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전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만남

소창체험관



▲ 소창체험관 전경

소창체험관은 강화도 소창 산업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이자 체험관이다. 1956년에 설립된 평화직물의 공장과 한옥 건물을 그대로 살려 조성했다. 한옥 건물은 1930년대에 건축된 것이다. 평화직물의 설립자인 마진수는 일본에 있는 공업학교에 입학해 일본 각지의 직물공장에서 기술을 습득했다고 한다. 27세에 귀국해 평양의 직물공업시험소에서 기사로 일을 했고, 이어 강화도에 들어와 조양방직에서 공장장까지 마쳤다. 그 뒤에 독립해서 세운 게 평화직물이었다. 마진수가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마영환이 가업을 이어 공장을 경영하다가 1990년대를 거치며 문을 닫았다.

평화직물 공장은 한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그러던 것을 2018년부터 강화군이 소창체험관으로 조성을 시작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8년은 강화직물조합이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답사활동

01 강화도의 직물공장 터를 답사하면서 옛 공장의 흔적을 찾아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기록해 보자.

공장 터	변화된 것	변화되지 않은 것
심도직물		
이화견직		
조양방직		
평화직물		

02 아래는 ‘진무영 순교 성지’ 마당에 있는 ‘가톨릭 노동사목의 시작’ 기념조형물에 새겨진 문구이다. 자신이 생각한 ‘밀알’의 의미에 대해,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 노트에 정리해 보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적어보자.

생각해 볼 거리

강화도는 한때 우리나라 직물산업의 중심지였다. 크고 작은 직물공장들이 강화읍내를 중심으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직물업이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한동안 사람들의 눈길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흥가처럼 남아 있던 폐공장들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으면서 공장이 있던 터에는 심도직물의 굴뚝, 이화견직의 담장, 평화직물의 한옥, 조양방직의 공장 건물 등을 활용해 새 공간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건조물들은 문화재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페나 체험관 같은 문화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재의 틀에 갇히지 않더라도 지역의 과거를 품은 흔적들에 충분히 역사 유산으로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해석을 통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이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것일지,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을 둘러보면서 역사 유산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주보, 천주교 인천교구
- 강화문화원, 1976, 강화사, 강화문화원
- 강화사편찬위원회, 1994, 증보 강화사, 강화문화원
- 김상숙, 2013, 가톨릭 노동운동의 재평가를 통한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9호)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15, 신편 강화사 증보,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 한중수, 2017. 2. 25, 우리나라 현대 노동운동의 시작 그리고 김수환의 시작 : 심도직물 터를 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레터
- 국립민속박물관, 2019, 강화의 직물, 소창, 국립민속박물관

인터넷 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 인천투어 <https://itour.incheon.go.kr/>

8-8

강화에서 밝힌 독립의 횃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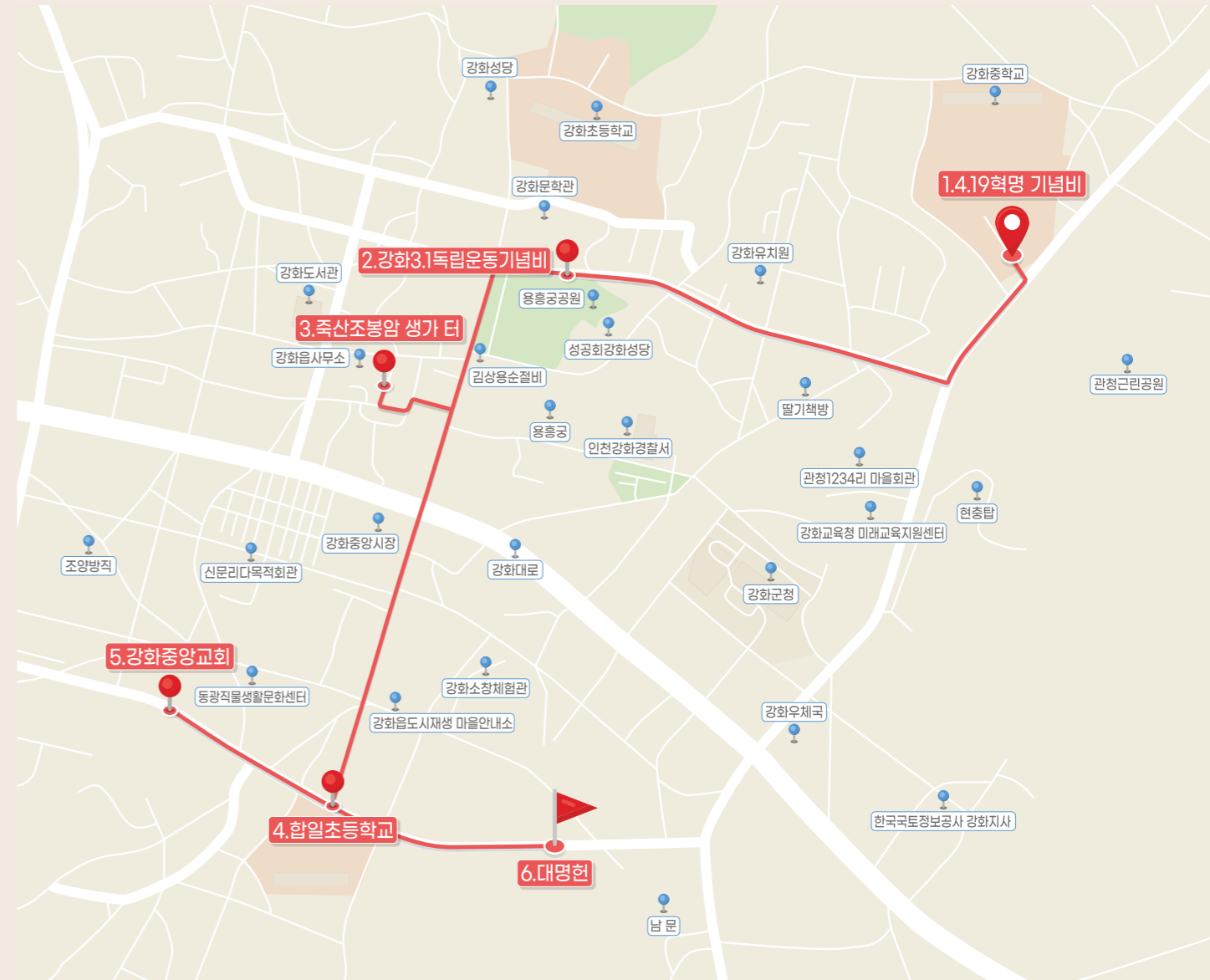
체험코스

① 4.19혁명 기념비 → ② 강화3.1독립운동기념비 → ③
죽산 조봉암 생가 터 → ④ 합일초등학교 → ⑤ 강화중앙교
회 → ⑥ 대명헌

총거리 1.9km
도보시간 1시간 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인권 #독립 #4.19 #죽산조봉암 #대명헌 #강화



8-8

강화에서 밝힌 독립의 햇불



강화도는 많은 항일운동가들을 배출한 고장이다. 1907년 군대해산 때는 강화진위대를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일으켰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제의 군경에 맞서 싸웠다. 그러한 전통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서 4·19혁명이 일어나자 강화도의 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며 자유와 정의를 외쳤다. 강화도 곳곳에는 그러한 항쟁의 흔적을 간직한 역사 공간과 강화도 주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죽산 조봉암이나 백범 김구가 강화도와 맺은 인연도 깊어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가 요구했던 정의의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죽산 조봉암은 강화도 출신이다. 강화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강화도 3·1운동에도 참여했고, 사회주의 운동에도 동참했다. 광복 후에는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서 이승만과 맞섰다.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한 후, 1958년 체포되어 간첩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언도 받고, 1959년 7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백범 김구는 황해도 안악군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차하포 사건으로 1896년 인천항감리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 그 후 2년만에 탈옥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1년에 다시 붙잡혀 경성감옥 인천분감에 갇혔다. 이때 막 공사가 시작된 인천항 축항 공사장에 투입돼 노역을 강요 당했다. 김구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구명 운동을 벌이고 탈옥을 도왔던 이가 김주경이란 강화 사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탈옥에 성공한 김구는 자신을 도와준 김주경을 만나기 위해 강화도로 향했지만 만나지 못한 채 몇 달을 머물다가 떠났다. 강화도는 항쟁의 고장이다. 거기에 종교의 역할도 컸다. 잠두교회의 기억을 간직한 강화중앙교회를 둘러보고 종교가 사회를 위해 말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조봉암이 태어난 생가터와 곳곳의 기념비들을 둘러보면서 불의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잃지 않고자 했던 정의와 인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4·19혁명 기념비

4·19혁명 기념비는 강화중학교 교정에 있다. 강화4·19혁명동지회와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2021년 5월 7일에 함께 세운 것이다. 당초 2020년 12월에 건립했던 것을 비문을 수정해 다시 만들었다.

4·19혁명은 영구집권을 피하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심판해 끝내 대통령을 해야 시킨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고 1956년에 있었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어 1960년 3월 15일에는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선거가 시행됐다. 이때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선거부정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1960년 2월 28일에 일어난 2·28대구민주화운동이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각지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3·15부정선거'를 규탄했다. 결국 1960년 4월 19일, 서울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를 하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라남도 광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도 시위대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로 제1공화국은 붕괴됐고, 1960년 4월 27일 허헌과도정부가 들어섰다.

강화도에서도 학생들이 혁명의 대열에 함께 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시기는 다소 늦었다. 현재 강화도의 4·19혁명과 관련해서는 1960년 5월 7일에 있었던 학생들의 시위 관련 보도가 남아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때 학생들이 요구했던 건 교육감의 퇴진이었다. 강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참여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화도의 학생들은 모금운동을 벌이며 혁명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렸다.



▲ 강화중학교 교정에 있는 4·19혁명 기념비

두 번째 만남

강화3·1 독립운동기념비

1919년 3월 12일, 강화공립보통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강화도에서 처음 시도된 만세운동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강화지역 3·1독립운동은 3월 18일 관청리와 신창리 장터에서 전개되었



▲ 강화3·1독립운동기념비

다. 5, 6천 명 정도가 모인, 꽤 규모가 큰 만세운동이었다. 이 날의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길직교회와 선두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유봉진의 주도 아래 황도문, 황유부 등이 사전에 모여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유봉진은 앞서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황도문으로부터 시위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함께 모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황유부의 집에서 유인물을 제작한 후 강화도 각지에 전달하여 계획을 알렸다. 거사

당일 맨앞에서 군중을 이끌 결사대도 조직하였다. 황윤식, 황일남, 조상문, 장동원, 장명순, 유희철 등 6명이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거사일인 3월 18일, 강화도 주민들은 관청리와 신창리 장터를 중심으로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결사대원들이 대열의 맨앞을 맡았다.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모여 들면서 순식간에 인원이 불어났다. 시위대는 연이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해 나가다가 이날 밤 11시경 해산하였다. 주모자였던 유봉진은 5월 17일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강화도 3·1독립운동은 3월 18일 이후에도 강화도 전지역으로 확산돼 한동안 산발적인 시위가 섬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인근 섬인 교동도까지 영향을 미쳐 3월 21일에는 교동도 화개면 주민 100여 명이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러한 항거는 1926년 6·10만세운동으로 이어져 길상보통학교 학생들이 '유희황제 인산일'을 맞아 동맹휴학을 벌이며 일제에 대항해 나갔다.

세 번 째 만 남

죽산 조봉암 생가 터

조봉암은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현재 조봉암 생가 터 표지석은 강화 읍사무소 건물 옆에 있는데, 조봉암의 출생지는 그동안 여러 곳이 후보지로 제시되었고, 아직 정확한 장소가 확인되진 않았다.

조봉암은 1908년, 지금의 강화초등학교인 강화성내보통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강화군청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고, 13세 때에는 잠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는 엽서청년회 모임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8일에 일어난 3·1독립운동에



▲ '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터' 비석(위)
'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터' 비석 원경(아래)

참여해 잠시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기도 하였다. 3·1 독립운동의 경험은 조봉암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이후 조봉암은 강화도를 떠나 일본, 모스크바, 상해 등지를 오가며 사회주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갔다.

광복 직전 예비 검속으로 체포돼 수감됐던 조봉암은 1945년 8월에 풀려난 후 인천보안대를 조직하였고, 1946년 2월 15일에는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대회에 참석해 인천지부 의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1948년 5월 10일에 진행된 제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초대 내각에서는 농림부 장관도 지냈다.

1950년 5월 30일에 있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1952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까지 두 번 출마했는데, 모두 2위로 낙선하였다. 이승만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봉암은 1957

년에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과 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조봉암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첩죄'였다. 결국 조봉암은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어 영면하였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평화통일,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에도 재해석되며 주목을 받는 중이다.

네 번 째 만 남

합일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는 1901년 4월 1일에 설립된 잠두의숙(蠶頭義塾)이 전신이다. 미국인 선교사 조원시와 강화 교회 목사 박능일(朴能一) 등이 뜻을 모아 세운 학교다. 잠두의숙은 1905년 보통학교로 변경되었고, 이후 잠두합일학교를 거쳐 1924년 강화합일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잠두의숙은 잠두교회 안에 설치된 교육기관이었다. 1909년에는 제일합일여학교도 교회 내에 설립되었다. 이 두 학교는 1939년에 병합됐다. 잠두의숙의 초기 교사는 20여 칸의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1920년대 초에 벽돌 구조의 2층 양옥 건물로 신축되었다.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강화합일학교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 합일초등학교 전경(위)
합일초등학교 외벽에 전시된 독립운동 관련 기록(아래)

다른 사립학교들이 모두 겪는 어려움이였다. 이 때 지역의 유지였던 최상현이 거금을 기부해 학교의 폐교를 막았고, 1928년에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최상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강화합일학교는 일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를 대표하는 민족교육기관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최상현은 1933년에 사망했고, 1935년 교정에 동상이 건립됐다.

강화합일학교는 1946년 11월에 백범 김구가 방문해 연설을 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때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김구의 친필 ‘홍익인간(弘益人間)’이 지금도 학교 안에 액자로 보관돼 있다.

합일초등학교는 강화도 근대교육의 변화 과정이 집약된 곳이다. 더구나 일제에 저항하면서 학교를 지켜내고자 했던 강화도 주민들의 교육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합일초등학교 외벽에는 학교의 역사와 강화도 항일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보드로 제작돼 전시되어 있다.

다섯 번째 만남

강화중앙교회

강화중앙교회는 1900년에 설립된 교회다. 설립 당시 이름은 잠두교회였다. ‘잠두(蠶頭)’는 ‘누에머리’란 뜻이다. 교회가 서 있는 언덕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잠두교회의 역사는 주선일 등이 신문리의 초가집을 매입해 함께 예배를 드린 데서 출발한다. 이듬해인 1901년에 지금의 강화중앙교회 자리로 예배처를 옮기고 이때부터 잠두교회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는 교회 내에 잠두의숙이란 이름의 교육기관도 설립했다. 이것이 훗날의 합일초등학교다. 이어서 1909년에는 제일합일여학교도 설립했다. 잠두교회는 1914년에 교회를 벽돌건물로 신축한 후 강화읍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의 명칭인 강화중앙교회는 1976년에 고친 이름이다.

강화중앙교회에는 ‘김동수·김남수 권사, 김영구 성도 순국추모비’가 서 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



▲ 강화중앙교회 전경

해산이 단행되자 강화진위대를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군이 김동수 등 세 사람을 주모자로 몰아 체포해 가던 중 더리미 해변에서 즉결처형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추모비이다. 더리미 해변은 갑곶나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여기에 ‘김동수·김남수 권사, 김영구 성도 순국터’ 표지석도 서 있다.

강화중앙교회는 조봉암이 세례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3·1운동 때에는 교인들이 앞장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종교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힘을 모아 불의에 저항해 간 교회 신도들의 항일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여섯 번째 만남

대명헌

대명헌은 강화도 남문 인근에 있는 한옥이다. ‘1928가옥’, 혹은 ‘황씨고택’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이 가옥은 백범 김구가 인천항감리서에 수감돼 있을 때 구명 운동을 벌였던 강화사람 김주경의 집터 일대로 알려져 있다. 김구가 탈옥하는 데 성공한 후 김주경을 만나기 위해 강화도에 왔다가 이 일대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 후 황국현이란 사람이 부지를 매입해 1928년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름 중 하나가 ‘1928가옥’이다.

서 이름 중 하나가 ‘1928가옥’이다.

김구는 광복 후 강화도를 방문할 때 이 터를 다시 방문했다. 그때는 이미 새 가옥이 들어서긴 했지만 김구한테는 자신을 구하려고 애를 썼던 김주경과의 인연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대명헌은 현재 주인이 또 한 번 바뀌어서 부분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강화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탐방 장소로 이름을 더해 가는 중이다.



▲ 대명헌 전경

답사활동

01 자신이 4·19혁명 당시 혁명에 동참한 학생이었다면, 어떤 구호를 만들어 외쳤을지 세 가지만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구호	이유
1	
2	
3	

02 합일초등학교 담벼락에 전시된 판결문 주인공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활동 내용 및 형량에 대해 조사해 보자.

이름	형량	활동 내용

03 초성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 (1) ㄷㅁㅎ은 '1928가옥', 혹은 '황씨 고택'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 (2) 강화중앙교회의 설립 당시 이름은 즈디기ㅎ였다.

(1) _____

(2) _____

생각해 볼 거리

강화도는 섬이다. 1970년에 강화교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강화도 사람들은 나루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갔다.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의 강화3·1독립운동과 1960년의 4·19혁명이었다.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강화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 일제의 탄압에 맞섰고 독재에 저항했다. 인천지역에는 섬이 많다. 강화도 이외에도 섬 지역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육지에 비해 섬의 역사와 섬사람들의 생활사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해 오지 않았다. 강화도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갖게 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섬이었던 강화도에서 일어난 3·1독립운동과 4·19혁명의 전개 과정이 육지의 그것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며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강화문화원, 1976, 강화사, 강화문화원
- 강화사편찬위원회, 1994, 증보 강화사, 강화문화원
- 인천사연구소, 2008, 인천 항일운동에 나서다, 다인아트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15, 신편 강화사 증보,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 인천광역시, 2021, 인천항일독립운동사 (하), 인천광역시

인터넷 자료

-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
- 인천투어 <https://itour.incheon.go.kr/>

8-9

길이 빛나는 인천의 역사

체험코스

① 동인천역 → ② 답동성당 → ③ 인천5.3민주항쟁 터 → ④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 ⑤ 캠프마켓

총거리 12km
도보시간 3시간(차량이용 시간 포함,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키워드

#민주로드 #인천 #5.3 #일제강점기 #평화의 소녀상 #징용 노동자상 #캠프마켓



8-9

길이 빛나는 인천의 역사



인천지역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광복 후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동인천역 일대는 그러한 항쟁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이며, 답동성당은 그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한편, 부평역 주변에는 1941년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됐고 광복 후 미군이 주둔하며 군수기지로 계속 이용해 왔다.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한 부평지역 일대의 공장들은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강제동원의 현장이기도 하다.

첫 번째 만남

동인천역

동인천역의 옛 이름은 축현역이다. '축현정거장'이란 이름도 갖고 있었다. 경인철도가 개통된 189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축현역 인근에는 넓은 못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이곳에서 스케이트장이 개장되기도 하였는데, 1920년대에 당시 용리, 즉 지금의 용동 언덕의 흙을 파내서 매립하였다.

축현역 앞의 연못은 꽤 유명했던 모양이다. 채만식은 '탁류'를 쓰면서 이 연못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던 미두장, 즉 인천미두취인소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니 축현역 앞 연못의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축현역은 1926년에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무렵에는 상인천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도 늘어나서, 1928년 조사에 따르면 상인천역 이용 승객 수는 경성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상인천역의 1년간 이용 승객 수는 89만 명이었는데 용산의 88만 명, 대구의 83만 명, 부산의 50만 명보다 많았다. 경성은 264만 명, 평양은 126만 명이었다.



상인천역에 이렇게 승객들이 모여든 것은 이 역이 '인천의 관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천 시가지에 접근하려면 인천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상인천역에서 내리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역 이름이 문제였다. '인천역'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인천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인천역이 아니라 인천역에서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1938년, 상인천역을 인천역으로 바꾸고 기존의 인천역을 하인천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광복 후인 1948년에 과거에 쓰던 명칭인 축현역으로 되돌아갔다.

축현역은 다시 1955년 지금의 명칭인 동인천역으로 바뀌었다. 동인천역 역사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됐던 것을 1957년에 3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했고, 1989년에는 민자역사를 건설했다. 1963년에는 동인천역 앞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지하철도 기공식이 개최됐고, 1965년에는 동인천-주안간 경인선 복선이 개통됐다.

▲ 과거 동인천역 광장(1972)(위)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생산기관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 생산연도 : 1972년, 관리번호 : DET0020780)

현재의 동인천역(2023)(아래)

동인천역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다. 지금은 광장이 사실상 사라졌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의 6월민주항쟁 당시에도 동인천역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공간이었다.

두 번째 만남

답동성당

답동성당은 1897년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다. 홍요셉(빌렘) 신부가 벽돌 구조로 건립하였다. 답동성당이 이곳에 세워진 것은 제물포란 지역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인천에 이미 개항장이 설치된 뒤였고, 제물포는 인천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계를 중심으로 상업도 번성하였다. 원산에 본당을 설립한 바 있는 블랑 주교는 제물포가 새 본당을 설립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이곳에서 성당 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홍요셉(빌렘) 신부를 인천의 본당 신부로 임명하여 1889년에 부임하게 하였다.

홍요셉 신부는 1890년 현재 답동성당이 있는 언덕 일대를 매입한 후 공사를 시작, 1897년에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답동성당은 성당 건물뿐만 아니라 1973년에 건설된 가톨릭 회관도 중요한 역사 유산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답동성당 일대의 정비 사업과 함께 가톨릭 회관 건물은 철거되었다.

답동성당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공간이다.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1987년 1월 26일에는 ‘박종철군을 위

한 추도식 및 기도회’를 열어 부당한 권력을 자행하는 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답동성당은 2009년 본당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성당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으로 성당과 주변 공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답동성당이 지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차지해 온 위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 답동성당

세 번째 만남

인천5·3 민주항쟁 터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에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6·10민주항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시민항쟁이었다.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은 당시 인천시 민회관 앞 일대였다. 지금의 옛 시민회관 쉼터이다. 이날은 신한민주당의 ‘헌법개정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에 맞춰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수만여 명이 모여 기독교 세력의 기만성을 폭로하려고 하였다.

신민당이 추진하는 대회는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인천시민회관 주변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신한민주당 관계자들은 주안역 앞에서 인천시민회관까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며 도착했지만, 대회를 개최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돌아갔다.

인천5·3민주항쟁은 12시 30분경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돼 늦은 밤까지 주안1동성당, 주안역, 석바위 등지에서 계속됐다. 인천5·3민주항쟁에서 모두 319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 중 1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그 뒤에도 검거와 수배가 멈추지 않았다. 구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학익동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6·10민주항쟁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민주화를 오히려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평가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3년,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명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비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비

네 번째 만남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은 부평공원 안에 있다. 동상들을 이곳에 세운 것은 일제강점기 부평공원 자리에 일본기업인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징용노동자들이 끌려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전범기업 중 하나이다. 그러한 공장이 있는 곳에 피해자들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과거를 잊지 말고 되새기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부평지역은 각 지역에서 강제동원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 안에 있던 공장은 물론이고,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돼 길을 정비하고 건물을 지었다. 강제동원은 다른 공장들에서도 행해졌지만, 특히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운영하던 군수공장이었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집단으로 동원되던 장소였다. 학생들은 1944년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 공포된 이후 학교를 가는 대신 공장에 들어가 기계를 돌렸다.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보국대’ 등의 이름으로 끌려와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작업에 투입되어야 했다.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학생들은 인천공립공업학교나 인천공립상업학교 등 다수의 학교에서 인솔되어 와 남자들은 조병창 안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은 일감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 대신 일을 하며 광복을 맞이해야 했다.

일본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인력, 물자,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전황이 점차 어려워지자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하여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일을 하던 학생들이 전선

으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은 2017년 8월 12일에 제막식을 거쳐 건립되었고, 평화의 소녀상은 한 해 전인 2016년에 세워졌다.

다섯 번째 만남

캠프마켓

캠프마켓은 미군기지다. 광복 직후부터 최근까지 미군들이 주둔해 있었다. 현재는 공여구역을 반환받아 토양정화 등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캠프마켓의 전신은 애스컴 시티(ASCOM CITY)이고, 애스컴 시티는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에 조성된 미군의 군사기지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일부 구역은 그 전에 있었던 부평연습장 부지를 넘겨받아 조성됐다. 100여 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해 왔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땅이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에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군이 운용하던 시설을 하나씩 접수해 갔다. 부평역 앞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도 곧 미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미군은 이곳을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애스컴 시티란 이름을 붙였다.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 안에는 반공포로수용소도 설치됐다. 부평 제10포로수용소였다. 1953년 6월 18일, 유엔군과 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하지만, 부평지역에서는 이 날의 석방 조치가 실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의 석방 소식을 알게 된 부평 제10포로수용소 내의 반공포로들은 탈출을 감행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캠프마켓 전경

1973년부터 애스컴 시티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캠프마켓만 남게 되었다. 기지가 축소되자 미군기지에서 근무를 하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미군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새 일자리를 찾았다.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부평지역의 경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캠프마켓은 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답사활동

01 아래의 장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을 적어보자.

부평공원	
동인천역	
답동성당	
옛 시민회관 터	

02 답사장소를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노트를 정리해 보자.

학생활동	활동 내용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답동성당이 맡은 역할에 대해 간략히 적어봅시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 적어봅시다.	
인천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부평공원에 세운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적어봅시다.	

생각해 볼 거리

인천광역시는 개항 이후 몇 차례 중요한 전환기를 경험했다. 그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1883년 개항, 1919년 3·1독립운동, 1941년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 1945년 해방과 미군의 주둔, 1960년 4·19혁명, 1986년 인천5·3민주항쟁과 1987년 6월민주항쟁 등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전환기마다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조국의 광복에 대한 믿음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역사 유산은 과거를 기억하게 해 준다. 동시에 역사적 장소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품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사회의 앞날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답사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학습활동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상하는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옛 시민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외친 구호는 계속 지켜가야 될 민주국가의 모습이었고, 부평공원에 건립한 징용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은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하며 세운 것이다. 학생들이 답사 현장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옛 사람들과 연대하는 상상을 가질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91, 천주교 인천 교구사, 천주교 인천 교구
-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인터넷 자료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국가철도공단 <https://www.kr.or.kr/>

기획 이종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장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관
신미경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사

1차 집필 이경아 인천가현초등학교 교감
정찬진 동인천고등학교 교감
박소현 강화교육지원청 파견교사
박희라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손호영 송도중학교 교사
이기석 송도중학교 교사
이재용 인천경원초등학교 교사
정고은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혜선 인천봉화초등학교 교사
조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장학사
조한솔 석정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원길 부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현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준비위원장
박은영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기획팀장

2차 집필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장희숙 인천향토사 연구사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도제작 이유진 프리랜서
현장검토 이동열, 김창길 인천바로알기중주단
김중운, 김현석, 이형진, 조양근, 박은영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진 홍승훈, 이동열, 김현석

인천을 품고 세계로3

인천 탐방길

발행일 2022년 12월

개정일 2023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전화 (032)420-8259

홈페이지 <http://www.ice.go.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